



時 計 塔

SIGETOP



2021년 7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8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安祐成 편집위원: 金明源 徐 亮 羅斗燮 徐仁錫
편집인: 徐倫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미주동창회 제2차 이사회 겸 대의원회 초록



2021년 6월 19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Cisco WebEx 화상회의

서부 화상회의 참가자:

김태웅(63) 김의신(66) 이견일(68) 김성환(71) 김영애(여사) 김일영(71) 정균희(72) 전경배(75) 안우성(76) 김동훈(77) 차민영(82) 김자성(85)

동부 화상회의 참가자:

최영자(66) 주광국(68) 서윤석(68) 강창홍(71) 이성길(71) 서인석(73) 남명호(81) 서귀숙(84) 강민중(91) 박종철(99) 임경빈(99) 박은경(00) 송경민(09)

Proxy:

임종식(57) 이만택(58) 채규철(59) 한기현(63) 권정덕(64) 허선행(64) 최준희(64) 이명희(66) 최순채(66) 임웅규(69) 조세진(71) 최영철(71) 문대옥(73) 민인기(73) 한민우(75) 이선희(81) 이선규(89) 이원택(71) 고용규(73) 최광휘(76)

1. 2021년 6월 19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서부 정오 낮 12시)에 Cisco WebEx를 통한 화상회의로 제2차 이사회 겸 대의원회를 시작하였다.

2. 본 회의 이전 Nominating committee member들의 별도 meeting이 30분 전에 있었다. 서부와 동부에서 참석을 한 임원들이 각자 소개로 반가운 만남을 서로 반겼고 이어서 2020년 10월 10일에 가졌던 지난 회의 초록(1차 이사회 초록)을 읽고 참가자 전원 이의 없이 동의로 2차 이사회 겸 대의원회의 회의 순서로 이어졌다.

3. 안우성 회장의 인사말:

- 힘든 코로나 사태를 겪고 다행히 모두 백신을 맞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시기인데, 미주 서울의대의 회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듯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에 열릴 회의는 화상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가 되기를 바라고, 예정하는 대로 내년 봄에는 그동안 열지 못하였던 학술대회를 열어 반가운 만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모든 회원의 건강을 기원하고, 동창회의 번영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꾸준히 애써 주시는 각 committee chair들과 꾸준한 후원금 지원을 해 주시는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4. Treasurer (85 김자성) 보고: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6월 18일까지의 은행잔고 액수와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다.

5. Finance committee (71 김성환 chair) 보고: 정균희(2018-19)회기와 이성길(2019-20)회기의 financial statement summary를 시계탐을 통하여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6. Fund Management committee (Fund Manager, John Baek) 보고: 투자된 fund에서 이자가 매해 2만 불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되는데, 2만 불에서 초과하여 지급이 된 이자 액수에 1만 불을 더하여 추가 투자되는 것은 안우성 회기에서도 진행이 되었다.

7. Scholarship committee(91 강민중) 보고: Member 강민중(91) chair, 이선희(81) Co-chair, 서인석(73), 김태곤(01), 조수정(03), 이익재(08) 소개와 운영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a) Scholarship committee의 3대 중요 활동으로는,

- SNUCMAA 장학금은 북미주 교포 자녀 대상으로 가을학기에 선정하는 것과 서울의대 모교 학생들 중에 미주 연수 희망자를 선정하는 것.

- 모교 서울의대 학생들과의 교류: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를 더 알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미주동창회 Green Project committee와의 대화 증진: 1년에 3번 정도 임경빈 GP chair, 몇 명의 GP 멤버 그리고 송경민 Website committee chair와 함께 회의를 시도해 볼 계획이다.

(b) SNUCMAA 장학금 선정 방법

과 김태웅(63) 장학금 설명: 매년 \$10,000 donation을 1기 10년을 하시고 이어서 2기 5년을 pledge하신 김태웅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김태웅 동문께서는 5년이 지나서도 본인의 인생 마감까지 donation을 이어가실 계획이라고 밝혀 모든 참석자가 박수로 화답을 하였다.

(c) One time 장학금인 이우찬(64) 장학금, 정일환(63) 부인이신 최문숙 여사의 장학금과 이상설(58) 부인이신 김정화 여사의 장학금 설명이 있었다.

(d)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Green Project member의 학술대회 참여에 지원을 하고 계신 정병욱 fund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 Scholarship committee가 지향하는 것은 Green Project committee와의 밀착 교류와 차세대 leader를 키우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의대 동문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future plan이라고 발표가 있었다.

8. Publication committee(68 서윤석 chair)의 보고: 편집위원회는 변동이 없이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시계탐 발행이 코로나 위험 속 어려움을 이기고 잘 발행이 되고 있으며 7월 호부터는 조심스럽게 대면 회의로 편집회를 계획해 본다 밝혔다.

멀리 Iowa에서 지원을 하는 박은경(00) 동문과 NY에서 열심히 편집에 도움을 주는 서귀숙(84) 동문에게 특별 감사 인사가 있었고, 황창근 사장과 동창회 사무실에도 감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9. Website committee(68 주광국 chair, 09 송경민 chair) 보고: 현재 Website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새로운 소식을 Website에 바로 반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동문의 이용을 바란다 보고 하였다.

10. Advisory and Exchange committee(58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 서면보고: 팬데믹 중에서도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연구기금과 장학금 지급이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2020년의 연구기금 총 \$455,000과 병원 발전 기금 \$50,000 등 각 연구 지원금과 장학금 내용이 보고되었다. (보고 내용 2면 참조)

11.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 보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뉴욕 장애 아동지원센터'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 다시 정상 운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매년 지원되는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지원금으로 닫힌 상태에서도 이어지는 지출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 고 염극용(60) 동문 부인으로부터 받은 donation 보고가 있었고, 취지에 맞는 Charity 운영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12. Nominating committee (71 이성길 chair) 보고: 오늘 화상회의로 이성길(71) chair, 정균희(72), 한승신(76), 이견일(68), 서윤석(68) 버지니아 지부 회장, 차민영(82) 남가주 지부 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난 1차 이사회에서 임명된 2021-2024 Board of Director 10명의 재청과 승인이 있었다.

2022-2023 회기의 새 회장 추천에 있어서 Nominating committee는 안우성 회장과 함께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각자 2022-2023 새 회장에 적합한 추천인물을 2021년 9월 1일까지 email로 접수하고 이견일(68), 한승신(76) 동문이 추천된 동문들과 연락을 취한 후 2021년 12월에 이 결과를 Nominating meeting에서 의논하며 2021년 9월 1일까지 예정대로 안될 경우에는 다시 9월 중 Nominating meeting을 가질 예정으로 한다.

13. Scientific committee(99 박종철 chair) 보고: 2022년 3월 말에서 4월 초 예정인 37차 학술대회는 2020년 준비한 것을 기초로 많은 동문의 지원을 기대하며 잘 준비해 보겠다고 밝혔다.

14. Non CME committee(김영애, 71 김성환 부인, chair) 보고: 2020년 준비한 것을 토대로 회원들의 호응이 클 program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5. 화상회의로 가진 제2차 이사회 겸 대의원회 참석자의 Screen shot을 찍으며 오늘의 회의는 모든 참석자가 반가운 만남을 아쉬워하는 가운데 다음 회의는 대면 회의가 될 것을 기대하며 마무리되었다.

37차 서울의대 북미주총동창회 학술대회

팬데믹으로 인해 2년씩이나 미루어졌던 미주동창회 37차 학술대회의 개최를 조심스럽게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내년 계획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March 31(Thursday)~April 3(Sunday), 2022
at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제37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서윤석 박종철 신규호 김영애 김성환 신용계 조병선 신원석
49, 50기 회장 안우성 외 회장단 일동

미주동창회 제7회 '함춘공로상' 시상

함춘공로상: 강상진, 오형원, 이명희, 학장상은 강민중 동문



강상진(59)



오형원(59)



이명희(66)



강민중(91)

미주 함춘공로상은 모교가 헌신적인 노력과 각별한 애정으로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힘쓴 동문들의 노고를 기리고 동문들의 단합을 기할 수 있는 학술대회 참석을 고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상해오던 명예로운 상으로 매년 미주동창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이어져 미주동창회 연례 학술대회가 취소되어 형식을 갖춘 시상식은 갖지 못했다. 이에 모교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수상 소식을 알리며 평소 미주 동창 회원들의 단합과 친교, 나아가 모교발전에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하는 '미주 함춘공로상'은 강상진(59), 오형원(59) 이명희(66) 동문들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공로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4,370달러)이 수여되었다. 또한 학술연구 활동으로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동문에게 수여하는 '서울의대학장상'은 강민중(91) 동문이 차지했다.

수상자 전원 상금 동창회에 기부, 이명희 동문은 1만달러 기부

수상자 강상진 동문은 상금 전액을, 오형원 동문은 2,370달러를, 이명희 동문은 상금 전액에 더하여 1만 달러를, 강민중 동문도 상금 전액 500달러를 동창회에 기부하여 동창회 사랑정신을 과시했다.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김정준(52) 동문 별세 :

미주 동창회 제4대 동창회장으로 동창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많은 봉사를 하셨던 김정준(52, Mathew Kim) 동문께서 지난 5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어철훈(57) 동문 별세: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시던 어철훈 동문께서 지난 4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재경 (60) 동문 별세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피부병리과를 전공하시고 귀국하시어 오랫동안 아산 중앙병원에서 일하시다 은퇴 후 버지니아 노후 생활을 즐기시던 고재경 동문께서 지난 6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2021년 7월 3일 오전 10시 KCPC 즉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집례)에서 고재경 선배님의 고별예배가 있었다. 유가족인 닥터 고훈종(아들), 고희정(딸)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조사와 로템나무 합창단의 조가 그리고 고인이 좋아하던 찬송가(내주의 뜻대로 549장, 저 놓은 곳을 향하여 491장)를 모두들 합창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고인을 기렸다. 참석한 서울의대 동문에는 (존칭 생략) 한달수, 임남중, 김용덕, 김주평, 박동수, 서윤석 등과 닥터 양남도 부부를 비롯하여 국내외 인사들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과 글 서윤석 편집인



최지원(61) 동문 별세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던 최지원 동문께서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 지난 5월 2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덕상(67) 동문 별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로 일하던 주덕상 동문께서 지난 7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조세진(71) 동문 별세

미주동창회 학술위원장으로 수년간 봉사하고 여러 차례 함춘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세진 동문께서 지난 6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7월 6일 메릴랜드 장로교회에서 가진 고별예배에는 의대 동기 4명(사진) 신상균(58) 이재승(61) 강창욱(61) 신백효(65) 서윤석(68) 김병오(69) 김원정(75) 동문들과 멀리 디트로이트에서 동기 오동환 부부, 박동수, 김제홍, 조병선 부부, 경기고등학교 동창회장 정기호 장효강 님 등 많은 친지 및 지인들이 참석하여 조세진 교수의 훌륭한 학자로서, 의사로서의 그의 일생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정균희(72) 동문 부인 별세

정균희 동문의 부인 닥터 정동선께서 암 투병중 지난 4월 27일 별세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보고(의대 관련)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현재까지 \$12,000,000(1,200만 달러)를 모금하여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으로 송금하였고 일부 소액은 미주 재단에서 투자하여 그 이윤을 포함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재단 이사장으로 10년 봉사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젊은 이사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동문 중에서 봉사하실 분이 지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Covid-19으로 보고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추가하여 보고드립니다.

- 65년도 졸업 홍수웅 동문이 \$100,000 기부하여 홍수웅 장학기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은 2021년도부터 지급됩니다.

2020년도 연구기금, 장학금: 특별히 서울대학병원 교수를 위한 기부금이 동문 아닌 기부인으로부터 답지하였습니다.

Han and Anne Kim이 정승용 대학병원 부원장을 위하여 \$50,000를 병원 발전 기금으로 기부 / 박영웅씨가 일반외과 양한경 교수를 위하여 \$45,000를 연구기금으로 기부 / Pae Family가 고 조용(62) 동문을 위하여 \$1,000를 해부학 교실에 기증 / Kevin Warsh, Greenolas Parters, Pershing Squares Foundation, Druckenmiller foundation이 \$410,000를 신경외과 박철기 교수, 삼성 병원 Dr. Sha의 연구



미시간 지부 소식

팬데믹으로 인해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미시간 지부 동문들이 거의 2년만인 지난 5월 8일 Shiro 한국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뒷줄 좌로부터 미세스 조의열 미세스 이민우 이민우(67) 이성길(71) 백성기(61) 미세스 백성기, 앞줄 좌로부터 박용화(58) 이희성(58) 남성희(62) 조의열(66)

김태웅(63) 동문 장학기금 1만달러 기부

지난 10년간(1기) 매해 장학기금 1만 달러씩 기부하셨던 김태웅 동문께서 다시 5년간(2기) 계획하시고 금년에도 장학기금 1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김동문은 설정한 5년이 끝나도 본인의 인생 마감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기부하실 의사를 밝혔다.

고 염극용 동문 부인 신영희 여사 동창회에 3천달러 기부

지난해 12월 2일 별세하신 고 염극용(60) 동문의 부인이신 신영희 여사께서 동창회에 3천 달러를 보내오셨습니다. 다음은 수표와 함께 받은 편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6.25 후 무척 어려운 환경 상황 가운데 명문 서울의대 입학하여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Charity fund에 donation 보냅니다. 귀하께 쓰임 받기 바라면서, Mrs. 염극용(신영희 드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67년 동기, 늦봄 모임소식



그누무 코비든지 하는 것 때문에 한 해 넘어 동안 동기들을 못 만난 터라 백신도 다 맞았겠다 한번 모여보자고 해서 지난 6월 9일에 한 한국 식당에서 모였더니 웬걸 거의 서른 명 가까이 모여서 난 이 근처에 그렇게 많은 동기들이 살고 있는지 그날 처음으로 알았네. 어쩔든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정말 좋기는 좋더라고. 그중 두어 명은 내땀 시간씩이나 운전해서 오질 않았나, 그중 한 명은 열시부터 시작된 골프에도 참가하고, 그러군 또 내땀 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 정말 대단해.

열시부터 시작된 골프는 그날따라 무척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모두들 혼나기는 했어도 무사히 끝을 내고 세시경부터 시작된 이른 저녁이 본론. 목은지처럼 퀘퀘한 얘기서부터 봄배추김치처럼 싱싱한 소식까지 해서 어찌나들 잘 떠들어대는지, 맥주 소주와 안주, 구운 고기에 냉면 수박까지 해서 세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그 와중에 멀리 서부에 살고 있는 동기들을 화상 통화로 불러내어선 우리가 이렇게 모여 놓고 있는 걸 보란 듯이 자랑도 하고, 정말 대단해.

그렇게 갇혀지내는 동안 동기 한 명이 하늘나라로 가서 간단한 묵념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젠 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하고 큰소리 치긴 했는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야 말이지.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면 또 만나서 공이나 치던지, 어쩔든 또 만나자구. - 김인귀 동부 동기회장

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연구기금: 김순균(66) 분당병원 EMR 연구기금 \$30,000 / 김순균(66) 정신과 연구기금 \$70,000 / 김인경(59) 미생물학 연구기금 \$30,000 / 김의신(66) 핵의학 교육기금 \$8,000

장학금: 김용재(66) 장학금 \$30,000 / 김기태(58) 장학금 \$20,000 / 이만택(58) 장학금 \$5,000 / 차민영(82) 장학금 \$10,000

2021년도 도서관 기부: 이흥표(64) 의대 의학도서관 \$30,000 / 이흥표(64) 서울대 중앙도서관 \$5,000

2021년도 장학금 및 연구기금: 김순균(66) 분당병원 EMR 연구기금 \$30,000 / 김순균(66) 정신과 연구기금 \$70,000 / 김의신(66) 핵의학과 교육기금 \$8,000 / 유인경(59) 미생물학 연구기금 \$30,000 / 김현(66) 병리학 연구기금 \$50,000 / 김기태(58) 병리학 연구기금 \$20,000

2021년도 장학금: 김용재(66) 장학금 \$30,000 / 김기태(58) 장학금 \$20,000 / 이만택(58) 장학금 \$5,000 / 홍수웅(65) 장학금 \$5,000

서울대와 의대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 제공



조세진 동문을 기리며

71년 동기들의 추모의 글

Pediatric Genetics 전공의로서 University of Kansas에서 일찍이 Full Professor가 되시고 석좌교수로 오랫동안 일을 여임 하신 조 박사님은 소아 유전학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머리를 다방면으로 드러내 미술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조 박사의 천재성은 서울 의과 대학에서도 인정받아 그곳에서 주최한 합춘학술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셨고, 미주 동창회의 여러 봉사 활동에도 몸을 아끼지 않아 서울 의대 미주 동창회에서 'Scientific chair'로 수년간 봉사하셨고 'Research and Fellowship chair'로 오랜 기간 함께 하셨습니다.

날카로운 두뇌회전과는 다르게 넉넉하고도 온화한 성격은 모든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합리적인 이성과 균형 잡힌 감성으로 항상 동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지만 소탈하고도 넉넉한 인간미는, 이미 세상을 큰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생김 여유로움이었을까요.

최고의 교수로, 순수 유전학을 전공한 자연 과학인으로 또 훌륭한 의사로 생의 수채화를 꾸밈없이 그려나간 조세진 박사님 천재는 단명이라 하지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당신으로 우리 모두는 당황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편히 가시고 편안하십시오.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Mrs. 조세진과 남겨진 가족 모두에게도 따뜻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김일영 & 김성환 드림

세진이의 사망 소식을 받기 하루 전에 Mrs. 조세진과 다행히 통화가 되었다. 열흘 전 양로원으로 들어간 후에도 미세스 조의 표현으로는 '조세진' 이었다 했다. 자는 것 같다가 깨어나면 말을 하는데 너무 말을 잘 한다는 뜻으로 금방 알아 들었다.

친구로 세진 군에게 보내는 love와 respect, 그리고 인간으로, 10여 년 전 세진 군이 신장 이식받은 후에 나와 그가 cherishness라고나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Baby boomer 시대인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의과 대학 재학 중에도 같이 가정교사를 했던 친구다. 세진이는 한때 유명한 가수 윤희주에 가정교사였다. 고등학교 때는 미국 문화 공보관에서 주관한 oak club이라는 영어회화반 단원으로 그 때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인재였고, 고교 미술 선생님의 사랑을 받던 미술 반원으로 의과 대학에서도 미술반을 계속했다. 선천적인 chondrodysplasia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 기억으로 부모님의 지극 정성, 사랑으로 세진이가 훌륭히 잘 자랐다고 생각했다.

의대 졸업 후, 농과대학 식물 유전학 교수였던 아버님을 따르려 했는지, 소아과 유전학 전공의 과정을 Johns Hopkins에서 끝내고 Wichita, Kansas에서 대학교수를 했다. 1976년에 벨티모어에서 만났는데 세계 언어 지도를 보던 중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Caspian Lake 근처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 더 알아보니 스탈린이 Manchuria에서 강제 이주시킨 역사를 몰랐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세진 군의 넓은 지식은 일찍 세계인으로 성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residency 후 한국 대학교 교수직을 염두에 둔 적도 있었지만 Wichita, Kansas에 남아 교수로 있으며 Best Lecturer로 뽑히고, 미주 서울대 동문 학술대회에 40여 년을 공헌을 하였다. 그 후 자주 뉴욕과 LA, 한국을 오가며 강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있었고 1980년 내가 대륙 횡단하며 이사하던 중 Wichita에 세진네 집에 들렀을 때 Mrs. 조, 어린 아들과 정말 행복한 모습이였다. 그 후 LA에서 만났을 때 세계인이 된 세진이가 들려준 중국 방문 이야기도 생각한다. 미국 대학교수이자 유전학자로 중국 북부의 한 병원에서 몇 주 교류하던 중 그곳 소아과 과장이 질문하

기를 왜 이렇게 많은 설사 환자가 남자애에게만 있느냐? 유전 아니냐? 하길래 세진이 답한 것은 여자아이는 병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 유전이 아닌 것은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다. 이때 중국에서는 한 집에 아이 하나의 정책으로 남아를 선호해서 임신 중 산전 태반 영아 성별 술식을 하여 그 합병증으로 손발이 없는 영아들을 보고 할 정도였다 한다.

서울대 의대 동문에게 주는 Best 미주 의사상도 받고, 선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았던 이유는 바로 Mrs. 조가 말씀하셨듯이 '조세진'이였기 때문이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옹고그름의 판단과 결정에 명확했고,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이었고 philanthropist였다고 본다.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으로 신장 이식을 Johns Hopkins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받은 것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신체적 제약과 아픔을 초월(transcendence) 했고 무위(nothingness)에 도달한 것 같았다. 가장 이상적이었으나 가장 현실적이었고 같이 cherish할 수 있게 가까웠던 친구 세진이가 한 말이 생각한다. "내가 stock 투자를 얼마나 잘 하는지 아니? 미국 대학교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아니?" 그의 웃음 먹은 얼굴로 하던 농담이 그렇다. 돈, 명예, art을 넘어선 훌륭한 친구인 교수님, 박사님. "세진아 훌륭히 잘 살았어" LA에서 박진국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세진아, 네가 그리도 많이 아팠구나 그리고 아프구나! 소식은 바람결에 간간이 들었지만 목소리로 대화한 것은 기억에조차 없는 내 무심한 마음이 부끄럽고 많이 아프다. 사진에 남다른 재능을 갖춘 네가 동창회에서 전시회를 끝내고 작품들에 감탄을 표하는 내 모습에 고궁(아마도 경복궁) 처마 밑에 달린 풍경 사진을 선뜻 선물한 너, 그 마음이 지금도 내 가슴에 선명히 남아 있는 데.

세월 따라 우리 모두가 걸어 가야 할 곳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가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때까지 편히 쉬고 있거라. 이 세상에서 연을 맺어 너와 함께 지낸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며 두고 가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릴게. 잘 가라 친구야! 친구 남수가 아픈 마음으로

조세진 박사, 우리보다 일찍 도미해서, 그간 멋있게 살고, 알래스카에 갈 때 Mrs. Cho와 같이 아기자기 함께 이야기하던 게 기억납니다. 천재 단명이라 우리 속담이 생각나네요.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많아, 속이 아픕니다. 평안이 가시기를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이성길

지난 겨울에 길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후에는 영 통화가 되지 않아 건강이 나쁘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힘든 순간들을 거치는군요. 기도합니다. Kidney transplant 하기 직전에 그 주를 넘기지 못할 듯했는데 이식 후에 10년을 비교적 건강히 더 살았네요. 모두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조병선

Shalom!

We are so sorry to hear and so sad that you are not here with us . You have been called, glorified and blessed by our God. We are sure and happy now that you are over there, Kingdom of Heaven, with God. We are praying for your eternal shalom over there. Thanks to our god! Love in Jesus. **From Sung Jeen Hong, MD**

Unfortunately, we lost our beloved friend, Cho Sechin, tonight. Dr. Cho Byungsun couple were present during his last moment, and I was able to touch his still warm face and hands. I sincerely admire his strong will enduring hardship of many years, and he will be remembered as a great friend, scholar, and loving husband and father.

From Yoogoo

고 어철훈(57) 동문의 아드님이 보내온 조사



Charles Fun Awen MD was born on March 13, 1932 in Seoul, South Korea to Jyng Young Aw and Sung Nyu Kim. He ascended to everlasting life on April 30, 2021.

Dr. Charles Awen practiced pathology in Green Bay, WI at Bellin Health (formerly Bellin Memorial Hospital). He also practiced at Bay Area Medical Center in Marinette, WI.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in Seoul, South Korea. His post graduate trainings include: rotating internship at Deaconess Hospital in Spokane, Washington, residency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at St. Luke's Hospital, Milwaukee, WI becoming eligible for the College of American Board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pursuing pathology training at Milwaukee County Hospital which is affiliated with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formerly Marquett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ilwaukee, WI), house physician at Grey Nuns Hospital in Regina, Saskatchewan, Canada, and completed pathology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Saskatchewan Medical School, Saskatoon, Saskatchewan, Canada. Dr. Awen served in the Korean War (1950-1953) as a staff sergeant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ir Force.

Dr. Awen was certified in pathology by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Dr. Awen was an assistant professor in pathology at Medical College of University of Saskatchewan, Saskatoon, Saskatchewan, Canada. He also was certified in pathology by the American Board of Pathology. He was licensed in Canada by Licentiate of the Medical Council of Canada (LLMC). He was also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 the province of Saskatchewan. Dr. Awen was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 Wisconsin by the Wisconsin Medical Board.

Dr. Awen was a past member of the medical board at Bellin Memorial Hospital as well as Bay Area Medical Center. He was also medical director of laboratories of Bellin Memorial Hospital and Bay Area Medical Center.

Dr. Awen was an active Mason and Shriner. He was the past Worshipful Master of the Pine Lodge in Oconto, WI. He was also a long-time member of the York and Scottish Rite. Dr. Awen was an active member and past potentate of the Beja Shrine. He was the captain of the guard at the Scottish Rite in Green Bay, WI. He also was past Sovereign of the Red Cross of Constantine of Green Bay, WI. He was the past director of Royal Order of Jesters of Green Bay, WI.

Dr. Awen was a past member, elder, deacon, and trustee of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onto, WI.

Dr. Awen is survived by his children, Thomas J (Linda Moy) Awen JD, Dennis Awen Ed.D., his grandson, William Awen; his brother, Chan Hoon (Suk Ja) Aw; his many nieces and nephews, and friends, Randy (Carol) Monette, and William (Jody) Binder JD, and many others.

There will be a memorial service in Green Bay, WI at a later date.

Dr. Awen was married to Kim Young Chung (Awen) M.D. for fifty-four years until Kim's ascendancy to immortal life on March 9, 2017. Now they are together at last, side by side, for all of eternity at the right hand of the Lord Almighty.



My Friend, Jimmy

Chang-Wuk Kang(61, Maryland)

He is my friend,
Because he was in my class in the school
Because he was working in the same line as mine.

He is my friend,
Because he sought me when he moved in this town
Because he asked me what and where of this town.

He is my friend,
Because he and I had lunch together a few times
Because he and I shared some memories together.

He is my friend,
Because he told me a lot about his success stories proudly
Because he told me a lot about that I din't seem to know.

He is my friend,
Because he put his hand on my shoulder some times as he was limping
Because he asked me to help him some times to climb up to his car.

He is my friend,
Because he confessed me that he is ill
Because he confessed me that he needs my help to get on his car.

He is my friend,
Because he asked me if I could take him to the hospital if he became ill
Because he asked me to stop by his home to check if all is fine.

He is my friend,
Because he was telling me that the he was failing
Because he was telling me that he might not be able to stand up any longer.

He is my friend,
Because he told me that he has to go home to his Master
Because he told me to pray for him.

He is my friend,
Because he knew his time and I said yes, and so
Because I told him I loved him, still and still.

고 최태순(61) 선배님을 추모하면서

COVID-19으로 만사가 뒤숭숭하고 행동반경이 많이 좁아져서 답답하고 우울하던 올해 1월 중순, 피츠버그에서 온 한 통의 전화는 저의 답답함을 한층 더 힘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고 사랑했던 최태순 선배님께서 세상을 뜨셨다는 전화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좀 잡잡해지고 여행이 허락되면 늦은 봄쯤에 가서 뵈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그 소식은 정말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이유를 하나 더 하자면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빨간 스웨터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신 얼굴과 깨끗하게 서 계신 모습이 비교적 건강해보이셨기에 갑작스럽게 가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3년 전 겨울에 심장수술을 받으신다고 해서 피츠버그를 방문해 뵈는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뵈었는데 바쁘고 힘든데 왔다고 야단을 치면서도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먼 미국 땅에서 선배님을 만나 병원에서의 수련도 받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선배님을 많이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늘 성실하셨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직무를 수행하셨으며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삶을 사셨기에 존경과 사랑을 드리기엔 부족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선배님을 처음 뵈는 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레지던트 자리를 구하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버팔로로 갔을 때였습니다. 버팔로 Mercy Hospital에서 소아과 과장인 백인 의사와 신생아과 과장인 동남아 계통(?) 의사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의 신생아 과장님이 선배님이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인 호텔로 가려고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서 돌아봤더니 아까 그 과장님이셨는데 한국말로 "어디로 갑니까? 데려다주겠어요. 당신 선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창하지는 못했던 영어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던지요. 성함을 다시 여쭙더니 "태순인데 미국 사람들은 '타이'라고 불러" 하시면서 아까 인터뷰 때는 공식

적인 자리라서 영어만 썼고, 공정해야 해서 아는체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체구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쓰신 분이 이름도 그렇고 해서 한국 분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후 몇 군데 더 인터뷰를 하고 저는 선배님이 계신 버팔로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아마도 선배님이 계신 데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레지던트들과의 수련은 혹독(?) 했지만 서툰 영어를 실력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선배님께 누가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남보다 열심히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지만 격일제로 24시간 당직을 했고 24시간 넘어서도 집에 못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가끔씩 집으로 불러주셔서 사모님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대접해주셨고, 어떤 때는 다리 건너 캐나다까지 데리고 가서서 중국 식당에서 메뉴에도 없는 짜장면을 주문해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에는 휴가차 후로리다에 다녀오시면서 큼직한 오렌지 상자를 사다 주셨는데 아내는 지금도 그때 그 오렌지가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었던 오렌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는 온 집안이 가톨릭인데 혼자 영세를 안 받고 있다가 선배님의 권유와 인도로 버락치기로 몇 주 교리 공부를 해서 역시 선배님이셨던 신부님께 영세를 받아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몹시 기뻐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배님께서 버팔로 Mercy 병원 정착하시기 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 토론토에서 인턴 레지던트, 헬로 수련을 마치셨고 미국으로 오셔서 Mercy 병원에서만 4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당시 그 병원은 버팔로 아동병원과 연계되어서 협력이 되어서 양쪽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선배님께서도 두 병원의 의대 학생들도 지도하셨고 레지던트, 헬로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버팔로 Mercy Hospital에서 올 여름에 병원 내에 추모 정원을 만드는데 선배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선배님 이름을 새긴 기념비와 정원 이름을 선배님 이름으로 하여 헌정하겠다는 병

원 측의 연락을 받으셨다고 사모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삶이 인정을 받는 순간이기도 모르겠습니다. 슬하에 삼 남매를 두셨는데 모두 훌륭히 성장하여 자신의 몫을 잘 하고 있고 두 분의 따님은 의사인데 그중 둘째 따님이 선배님과 똑같은 과목을 택하여 피츠버그 의대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평소에 선배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긴 세월을 삶의 동반자로, 친구로, 도우미로, 내조에 전념하셨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며 선배님께서 늘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장례미사를 동영상으로 따님이 보내주셨는데 COVID-19때문에 텅 빈 성당 내

부를 보면서 시국이 이렇게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배님을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면서 보내드렸을 텐데 하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천천히 하늘에 계신 남편을 만나러 갈 날을 준비하시겠다는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착잡한 심경이 됩니다.

글 재주가 없는지라 행여 누가 되지 않을까, 실수를 하지 않을까,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마침내 든 생각은 내가 잘못 써도, 실수를 해도 하늘 저 넘어 어딘가에서 지금도 미소를 짓고 내려다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에 안도를 합니다. 세상을 묵묵히 모범적으로 성실히 살아가신 선배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두고두고 감사하고 벌써부터 많이 그리워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2021년 봄에 캘리포니아에서
75년 후배 전경배 올림

친구

문성길 (70, 남가주)

오늘 세상에서 오직 한 친구 뽑으라 할 때 주저 없이 선택할 친구의 부음을 접했다. 60여년 이상 된 친구라기보다 형제이다.

내가 동부 워싱턴에 불일이 있어 떠나기 전 그 친구가 꿈에서 보여 이역만리 한국에 전화로 통화했을 때 통화, 내일 (5/31) 병원에 폐렴 증세로 일주일 정도 입원 예정이라며 내 전화를 반갑게 받았다. 그는 과거에 혹시 아프기라도, 또 무슨 사고라도 있으면, 너 보지 못하고 저 세상 갈 뻔했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그래 이번에도 좀 걱정은 되었으나 병원에 가 치료 잘 받고 편히 쉬다 나오라 하고 끝낸 통화가 그와의 마지막이 될 줄을 - - -

세상에 친구관계를 죽마고우, 막역지교, 관포지교, 문경지교, 수어지교 등으로 나타내나 그래도 으뜸으로 지음지교라는 표현이 있겠다. 물론 깊이 들어가 해석하면 지음지교에도 오만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 음악을,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의형제), 그가 죽고 이 세상에 없자,

“종자기”밖에 없다면 자신의 거문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안 았다던 중국 진나라 때 대가, ‘유백야’의 “절현의 고사”에서 유래, 내 마음을 꿰뚫어 알아주는 친구 관계를 말할이렸다.

다음의 얘기들은 모두 ‘겸손’을 강조한 것이나 ‘직목선대’라 해서 곧은 나무는 가구, 건축자재들 용도로 먼저 베어져 사라져 버리나 겉모습만으로는 볼품없을 (사실은 유용한 용도로 쓰임) ‘곡즉전’이라해서 굽어진 나무가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아 선대 묘소를 지킨다는 옛말이 있듯이 친구들 간에도 좀 잘나가는 친구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기에 때론 선의의 경쟁, 나쁜게는 은근한 시기, 질투 등을 본인들도 모르게 할 수 있음을 종종 목격한다. 또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의 구설에 오르내리며 다치기 쉽다. 하지만 다른 곳에 관심과 재능은 있으나 학업에 그리 열심이 없으면 학창 시절엔 소위, “굽어진 나무” 취급받기 십상인 친구들은 학업만 그렇지 겸손하며, 진실하여 오히려 친구로서 진한 우정을 오래 지속함을 독자들도 동감하며 경험했을 줄로 생각된다. 그는 후자에 속한 그런 친구였다.

타국에 나와 있는 나 대신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 성묘를 해주던 그런 친구였다. 이 세상에 이런 친구 있을까?

친구여! 너무 허전해, 자네가 없는 이 세상! 곧 다시 만나 술 한 잔 하세!

2021년 6월 19일 이승에서 성길이가

고 김정준(52) 동문의 따님이 보내온 조사

June 5, 2021

Thank you for coming. And I just want to start by saying that my father hated funerals.

My sister and I tried talking him into it. "How about a gathering?" "No. Maybe. Who?" "Y'know. Family. Friends." "...no hymns." "Okay... no hymns. How about music?" "... no. Maybe. No wreath." "Okay."

Part of it was that he couldn't handle any display of weakness. For extended reasons including the fact he was Korean, my father hated crying, even when we were kids, even when we had, you know, reasons to cry. When my niece Evelyn was little, she was watching a Sesame Street special on 9/11 and how children deal with trauma. And my father pointed across the sitting room and yelled, "hey -- look at that little red guy! He's crying!"

Yes - my father made fun of Elmo.

But I think the main reason my father hated funerals was that he had no use for self-seriousness, or proper faces, or stuffiness of any kind. Give him a party any day. On a moment's notice -- literally -- he and my mother could pull together a New Year's party for 75, host a household of overnight guests during a blizzard, or prep a formal dinner for 12. There was no problem too awful or achievement too dinky that wasn't worth a trip to Arthur Avenue for imported bottarga and buffalo mozzarella and to Zachy's for a new case of wine. He referred to Lidia Bastianich and Marcella Hazan and Julia Child by their first names, like they were old friends -- which I guess they kinda were. Once, my parents flew home from Europe -- and that evening, with jet lag, still managed to host a sit-down dinner for 8, with my father doing all of the cooking. Everyone came to their parties - I feel like thousands of people visited our house over the years. Once in NYC, I had a Korean cab driver and while we were chatting he spontaneously asked if I knew Dr. Matthew Kim of Port Chester and if I had ever been to his house.

Some random facts about my father:

- He wanted to be a fighter pilot
- He was out horseback riding the morning my sister was born.
- He could diagnose anything, even without looking, even over the phone.
- He walked faster than most people run.
- He whistled Rossini and Verdi during surgery.
- He had a crush on Rachel Maddow.

- He went to Venice 10 times and as far as he was concerned, that was just scratching the surface.

My father's life was shaped, profoundly, by art and music. He became a Christian because of the beauty of sacred music; he took the name Matthew after the oratorio by Bach; and when he tagged along with a friend to meet the famous lady novelist Kim Marl-Bong, he was greeted by her daughter - who became his wife and my mother. If God is the original creator, he is also the first artist, one who forged the world in order to please his eye. My father perceived this down to his bones. While he struggled, as we all do, with faith, his reverence for beauty - and the fact that he had really good taste - kept him moored in his belief that there was something bigger, something transcendent, that bound us all as human beings.

My mother, the daughter of a writer, was drawn to complex psychology in the books and movies she loved. My father adored stories, too, although his tastes were simpler. In our family, we always gave books and movies as gifts. But when I recommended Don't Look Now (Venice) - he said it was too scary. Or The Talented Mr. Ripley (beautiful location filming in Italy) - he found it too ugly. Don't even ask about Burning or Parasite - filmed in Korea, by Korean filmmakers.

But one movie that will always remind me of my father is Babette's Feast, the Danish film based on a Isak Dinesen story: in which a housekeeper takes all of her money to create a sumptuous feast for the elderly and pious sisters she works for. Even though the old ladies and their guests vow not to be swayed by the sinful pleasures of the table, they are gradually elevated by the meal -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And that is what today is, because that is how my father saw religion, and life, and art: as a celebration.

My father had his narratives - don't we all? -- and he clung to them. And yes, he softened and blurred the details over the years. I mean, he was a human being, with human flaws: He was stubborn. And he had a temper. And yet the stories he told about himself again and again gave him meaning, and happiness, and revealed who he was and how he saw his life. How his teachers opened his eyes to not just the Renaissance and Beethoven and the Impressionists, but to a world far beyond his tiny town in North Korea. How tagging along to meet an esteemed writer led to marrying her daughter. How career and achievement and belongings really were secondary to the pleasures of being alive.

At the end of his life, I sat with my father and asked if he was thirsty and wanted more water. "No," he said as he gestured for me to stay. "Words are more precious."

인종차별, 성차별, 대량학살을 소멸시키자



김 병 석(59, 대뉴욕)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대량학살의 원인이라고 정부 인사들, 권위자들, 언론들이 무어라고 제시하고 있는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이것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예방하느냐가 화급한 문제이다.

신문 언론에서는 주로 이런 행위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경고와 주로 총기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강화해야 한다. 아무도 이 사건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건들의 근본 원인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근본 원인은 성격장애이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요소는 대인관계이며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따라서 각 개인의 성격이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과 매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하고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신경성 성격장애 특히 자아도취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즘, narcissism)의 소유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가중되는 문제는 성격장애라는 것이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되고 또 성격은 고치거나 변경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방치해 두는 데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즘 성격장애자라고 경고한 미국의 직전 대통령의 4년간 행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알드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격분하면서 겪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 행동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패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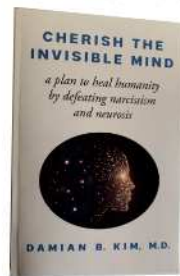
지금 우리들은 노이로제와 노이로제적 성격장애라는 문제를 등한히 한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다. 이 사회는 노이로제적 증상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즉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불안 증상들, 우울증, 자살과 타살, 약물남용, 그리고 노이로제적 성격장애 특히 나르시시즘 등의 증가이다. 나르시시즘 성격의 소유자는 지나친 자신감, 자기자랑, 자격과 권리 주장, 거침없는 말대꾸,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고 냉정하고, 인종 및 성차별적이고, 종잡을 수 없고, 등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런 증상들과 성격의 소유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물론이다. 요즘 젊은 이들이 버릇없고 다루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디지털 기기의 표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만들어 놓은 기술이 공헌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가, 정신 치료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성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정신 치료만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정신건강 치료법은 잘못된 전문의 지도자들과 자본주의적 폐단에 의해서 왜곡되어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두 가지이다. 임시적인 미봉책이 그 하나요, 근본적인 원인 즉 성격장애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근치해서 영원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의 반복을 예방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반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대중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민법을 개정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곡된 정신과 치료를 진보 개선하는 이상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성격장애라는 정신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반 대중과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후퇴하게 하는 극진한 노력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격장애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고쳐 달라고 오는 일이 없고 그것이 또한 이 병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매일 5분 이상 명상시간을 갖는 것이며 간단하고 쉬우나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런 노력은 이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대중들에게 간접적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 몇 대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인종차별, 대량학살 등의 끈질긴 사회적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근시안적이 아닌 인내심 있는 비전 (vision,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발휘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최근에 저자가 영어로 출판한 책 Cherish the Invisible Mind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원택(71) 동문 미-한[변형]사전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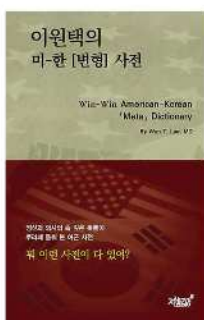
책소개: 기존의 영한사전과는 달리, <21세기에>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한국 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한국어 처방]으로 표기해서, 그동안 병 들었던 영어 교육을 고쳐 보려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출판사 서평: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영어를 모르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렇다고 미국어를 한국의 국어로 삼을 수는 없다. 미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살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영어를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편자 이원택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음이 역력하다.

그는 미국어가 영어와 많이 달라지고 있고 한국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미국식 영어라고 생각해서 이 사전에서는 미국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답게 예리한 관찰력·정확한 묘사·공정한 판단력을 동원했고, 문학가답게 세심한 배려·공감대 형성·새로운 창조력을 심본 발휘했다.

그간 출판된 영한사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밤에 그 나물'이란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원택은 과감히 기존의 틀을 깨고 뛰쳐나와 가히 <개척자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자의 말마따나 이 책은 광마가 창공을 가르듯 "go for broke(이판사판)" 하는 심정으로 쓴 한편의 [박람회기-博覽記]이다.

혹시 책을 구입(책값: \$35.00)하고 싶으신 분은 LA의 반디서점 (213-389-8885), BandibooksUS.com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울리는 시어(詩語)들



서윤석 시인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수 년에 걸쳐 미주 서울의대 계간지 뉴스레터 <시계탑>의 편집장인 그를 편집회의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호형호제 하기보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앞장서는 이유도 그의 시어(詩語)가 전해주는 품격과 위풍 위풍 때문이다.

2021년 5월에 한국의 시문학사에서 발간된 서윤석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무심한 구름>을 읽으면 방금 말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시 여러 편이 눈에 밝힌다.

(전략).. //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울지도 말고 침묵하라/ 사탄의 차가운 몸짓들/ 달콤한 냄새와 향기 풍기는/ 요망한 춤소리/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두 눈 감고 엎드려라//.. (하략) -- <엎드려라> 일부

시인은 전 지구촌이 1년이 넘도록 조석으로 체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에 대하여 비장한 어조의 명령어법을 구사한다. 급작스레 바뀌진 일상의 낯설, 저항감, 생명에 대한 애착과 공포와 포기! 끔찍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2020년의 몸부림이 곳곳에 보인다.

병원 가는 길 서럽다/ 낮선 불빛/ 앰블런스 소리 무섭다// 허리 굽은 육신/ 주름진 팔/ 피 뽀하고 난 푸른 정맥 시리다/ 황혼에 찾아온 병실/ 쓸쓸한 기다림/ 창문 흔드는 바람소리 서럽다// -- <병원 가는 길> 전문

불안한 마음을 조용하게 서술할 때 우리의 불안감에는 일종의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을 시인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담담한 어조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진정제 역할을 한다. 이런 심리적 추체는 아래의 시에서도 그 단아함과 평온을 여실히 시사하고 있다.

.. (전략).. // 이제 오직 바라는 것은/ 간혹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편안함 그것이다/ 자연의 모습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만 손을 놓아주기를 기다린다/ 눈물을 씻기고 하늘을 받고자 한다// -- <안락병실-*호스피스> 일부

222쪽에 달하는 이 시집은 총 7장으로 구획된다. 자연, 가족, 인연, 생활, 역사, 의료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이민 초기 회상>을 위시한 네 개의 산문에도 시선이 쏠린다. 누구도 시대적 배경을 뛰어 넘거나 흐름을 추월하지 못한다. 알고 기억하는 것은 과거 뿐이라는 상식에 우리 모두는 귀의한다. 시에 담긴 시적 풍물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시인의 일생과 일상의 타임라인을 추적하는 것이 좋은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시인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산문, <전쟁과 평화>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 그러다가 그날 밤 복진하던 미군들이 되돌아와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동네 한 마을로 밤에 피신 시키고 산 속을 통하여 북으로 도주하는 인민군 패잔병이 있다면서 산을 향해 기관총을 쏘던 생각이 난다. 그래도 형들이 쌀 장사를 해서 내 방에는 쌀이 한 포대가 있었다. 쌀, 쌀이 있으면 살았다. 그때가 생각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나는 여섯 달 어치 식량으로 쌀 40파운드 두 포대를 사다 놓았다. 서양사람들은 휴지, 밀가루, 고기를 미리 사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결같이 과거라는 굴레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등에 지고 산다. 체험의 혹독성과 각자의 심리적 역량에 따라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더 튼튼하고 세련된 인품으로 진화하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과거라는 짐자의 중량감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런 아픔의 공유의식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공감의식은 시와 산문을 비롯한 소통의 근간을 이룬다.

시집에 포함된 근래에 쓴 실화처럼 읽혀지는 단편 소설 <노병은 죽지 않는다>가 깊은 감동을 준다. 아날로그를 방편으로 삼는 올드 스쿨이 디지털을 애용하는 젊은 기능공에게 밀리는 장면을 그린 부분이 공감의 파문을 일으킨다. 시인의 애정 어린 시각이 파스하기만 하다.

서윤석 시인의 점액질적인 낭만성에도 호감이 간다. 모름지기 시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겠지만 평생을 그 부분과의 저항심으로 고민하는 터에 이 시집을 여러 번 읽고 배우는 즐거움을 누린다. 시인이 울며불며 탄식하거나 울분을 토로하며 목정을 높이거나 하는 시대가 지나간지 오래라는 각성도 있지 않은가. 미우나 고우나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그의 시선에 경의를 표한다. 나로서는 이유가 분명치 않지만 가장 애정이 가는 시, 그의 대표 시로 간주되는 시의 일부를 좀 고조된 심정으로 당신과 공유하고자 한다.

.. (전략).. 나무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치니 생선이 기절했다/ 맛있는 사시미 요리를 준비하려고/ 그는 아가미 사이를 날카로운 식칼로 찌르며/ 검붉은 피부터 뽑았다 / 그리고 근육을 예쁘게 썰어 차곡차곡 손님 접시에 담았다//.. (중략).. 그들은 소주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바닷바람이 불어 냄새와 연기가 훤히 퍼졌다/ 하늘 높이 한 조각 구름이 지나갔다/ 떠도는 위성처럼/ 무심한 구름이 지나갔다/ 모두들 만취(滿醉)했다/ 나무관세음보살// -- <무심한 구름> 일부

어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2020년을 기록에 남긴 이 시집에서 시인의 절제된 슬픔이 전해지지 않는가. 맛있는 사시미 요리를 즐기면서 여럿이 함께 모여 시대의 아픔을 해소하는 진통제라도 복용하듯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는가. 삶이란 성실하고 선량한 생물체들의 유기적 연대감에서 오는 희열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지 않는가.

서윤석 시인은 시집에 게재된 모든 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인들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2세들에게 하는 친절한 배려심이 느껴진다. 그는 '무심한'이라는 말을 'callous'로 옮긴다. 한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는 없을 無에 마음 心, 즉 '마음 없음'을 냉담하고 몰인정한 뉘앙스를 풍기는 'callous, 냉담한'이라 번역한 것도 아주 쿨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냉담한 구름을 차분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서윤석 시인은 실로 쿨한 시인이다.

서 랑 (69, 대뉴욕)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장 행복하셨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는? 임상을 하셨다면 전공과목은?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된 경험은 언제이었던가요?
6. 의대학창시절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말씀해주세요.
7. 다시 태어나셔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8.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 중에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소 자량이 되어도 좋습니다.
9.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소개해주세요. 혹시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언제 끊으셨습니까? 혹시 종교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10.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때에 무엇을 의지하셨나요? 편집위원회에나, 의과대학, 동창회나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조은순 (61) 선배님



1. 1965년 Rochester General Hospital 인턴 시작. \$50.
 2. 선배님 소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합격 때
 3. 어렸을 때 희망. 환자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함.
 4. 일반외과.

5. 인간관계. 6.25 피난시절. 중환자가 회복했을 때.
 6. "Organic Chemistry = 유기화학 = 늦그릇 화학 = No good 화학"이라고 칠판에 쓰였을 때.
 7. 예. Engineer
 8. 아무리 바빠도 애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9. 매일 산보 (walking). 아니요. 예수교.
 10. Internet.

김한중 (62) 선배님



1. 우리 때 서울 의대 교육이 거의 전부가 미국 교과서로, 미국식 강의와 훈련으로 바뀐 시절에 졸업했는데, 당시 미국 보스턴에서 소아외과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셨던 민병철 선생님이 하신 2주 동안의 국가고시 면허 시험 준비를 위한 Review Course에 참여하고 의사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미국으로 가기로 작정했지요. 한편 미국에서는 Johnson 대통령이 Medicare 법을 통과시킨 후 모든 병원이 초만원이 되어서 의료 인적자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자 ECFMG를 통해 외국인 졸업생들을 training 목적으로 데려와서 병원 운영에 충당했지요. 나는 비행기 표도 나중에 월부로 갚도록 해서 뉴욕에 도착했고 주머니엔 50불 정도 있었습니니다.
 2. 뉴욕에서 소아과 training을 마치고 fellowship을 할 때 resident를 하고 있었던 현 wife를 그녀의 아버님이 나를 찾아와서 한번 만나보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거의 55년을 연세의대 여왕님(?)으로 모시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미국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 중령으로 승진이 되었을 때 행복했지요.
 3.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아팠습니다. 아마 5-6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나는 커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80여 년을 보냈는데 아직도 어린이들이 병이 나서 고생하니 다음 세대로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물려주어야 하니 송구스럽습니니다.
 4. 의사의 조건은 정직함과 의사소통 기술 Communication skill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로 50년을 보내면서 소아관절 분야, 내분비 분야, 또한 후배 양성교육에 관심을 두었지요.
 5. 자신보다 더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교훈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역시 6.25. 1.4후퇴 때의 피난생활과 미국에서는 Intern, Resident 할 때가 힘들었지요. 중노동을 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가장 보람된 경험은 조기진단을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적시에 진단과 치료를 잘 받게 해서 구해냈을 때와 또 4시간마다 Dialysis를 받으며 신장이식을 받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환자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그 일주일간 돌봐주고 잘 치료가 되게 했을 때입니다.

6. 지나친 과외활동(?) 때문에, 의예과 때는 Student Music Club, 본과 때는 이화여자대학 의대생들과 함께 하는 서울 의대 연중 음악회 준비를 맡아서 동분서주하던 일, 그런 일로 재시험도 치렀지만 그런 것이 사회과학 경험을 얻게 하여 내성적이었던 내 성격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7. 만일에 의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면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경제학을 동시에 공부해서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직업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되지 않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를 혹시 선택한다면 Computer Science에 매력을 느끼네요.
 8. 아이들은 보고 듣고 같이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처럼 되어서 같이 놀 줄도 알고 그들의 뇌 활동에 동참해야 나중에 의사소통이 잘 되겠지요. 나는 물고기를 잡는 법과 요리하는 기술을 가르친 것 같은데 어디에서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잡는 지식은 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9. 우리 뉴저지에 사는 동네에서 여섯 부부가 테니스 그룹을 만들어 30여 년 정구를 즐기다가 이제는 80줄에 들면서 '먹자 그룹'이 됐지만 아직도 골프를 열심히 치며 수영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팬이치기, 탁구, 수영, 정구, 또 미국에 와서는 9홀 골프코스가 군인 병원 구내에 있어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내 나이 점수를 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삽니다. 스키도 아직 타지요.
 한국에서는 우리 나이를 '고령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다 하고 살고 있으니 나는 이제 그들을 '저령자'라고 부르겠지요. 나이를 먹어도 행복은 역시 배우려는 의욕, 자기 이외의 판 생물체 도움, 많은 친구 유지, 또한 타인을 위한 봉사 생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의과대학, 수련과정 시 피우다가 군대 PX 담뱃값이 무척 싸게 될 무렵 끊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참 잘한 결심이었지요. 종교는 아내가 가톨릭이라 따라서 나도 그러했는데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 여행을 요즈음 못 다녀서 갑갑하지만 그래도 내 일생 동안 골프를 이렇게 많이 쳤던 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희생을 내고 이제 미국에서는 생활이 팬데믹으로부터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되거나 백신이 늦어진 한국이나, 다른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고난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해 동안 시계탑 편집위원회나 동

김태형 (63) 선배님



1. 1966년에 거금 250 불을 들고 왔어요. 원래 150불만 정부에서 허가했는데 어머님께서 100불을 어디서 구해와 허리춤에 꿰매 넣어 주시면서 비상용으로 잘 간직하라 하셨죠. 아마 이 100불과 어머님의 정성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도미 전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 중 경상북도 호미곶에서 1년 근무했는데 무의촌이라 약국도 없었지요.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그들을 돌보면서 내가 미국서 선진의학을 공부하고 이곳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했어. 그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2. 보스턴에서 수련하던 중 누이동생의 소개로 당시 Smith College에 수학하던 지금의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요. 함박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 보스턴에서 Amherst Campus로 바래다주면서 사랑이 싹텄지요. 계획했던 작년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행복했던 때는 참 많았어. 내 직업에 관한 것 중 하나를 꼽으면 조교수 시절 Lancet에 백혈병에 관한 임상논문이 lead article로 실려 그것을 계기로 여러 논문이 이어졌고, 덕분에 Emory 대학에서 Tenure를 받고 교수 생활을 탈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어.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꼈던 때는 부모님 임종을 지킨 일이에요. 이점에선 많은 동문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한국과 미국의 직장을 오가며 늙으신 부모님 모시는 것이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으니까요.
 3. 아버님은 법대, 공대, 의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셨죠. 나는 문리대 국문과를 꿈꿨지만. 법대는 싫고, 공대는 형이 선전해서 저는 의대로 진학했어. 의사의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학구열이 뛰어나야 해. 봉사정신도 중요하지만 최신 첨단 의학 지식 없이 환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 문학의 꿈요? 은퇴 후 간간히 시를 쓰고 있어요. 작년엔 하이데거 문학상 시부문 대상도 받았어.
 4. 소아 혈액종양을 전공했고 세부 연구 분야는 소아 뇌종양 치료와 조혈 모세포 이식.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난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젊어서는 누가 뭐래도 도전 정신이 아닐까요. 공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딜 때는 겁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 만만했죠. 1966년 7월 4일(독립기념일인 줄도 몰랐어요) 미국 병원에 인턴으로 도착했는데 병원 기숙사는 텅 비어 있었고 Paging system으로 병동, 응급실 등에서 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글썽 휴일인데 Orientation도 없이 당직으로 세워 놓고 모두들 나가 버린 거죠. 나도 화가 나서 무조건 버스, 전차를 타고 Boston Fenway Park로 달려가서 좋아하던 야구 구경을 했죠. 말로만 듣던 유명한 외야수 Carl Yastrzemski와 투수 Jim

Lonborg의 멋진 모습도 봤지요. 그날은 Double Header라 오후 늦게 경기가 끝났죠. 그리고 그날 뜻밖에 관중석에 동기 신경호 군이 보이더군요. 아마도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해만에 처음 만났을 거예요. Peter Bent Brigham Hospital에서 Resident를 하려고 막 보스턴에 왔다는 거예요. 나의 기막힌 사정을 이야기해 주니 걱정 말고 우선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Mrs. 신께서 차려주시는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Dr. 신이 자기 차로 병원까지 데려주어 도착하니 벌써 밤이 되었어요.
 이야기는 길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좋은 추천도 받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더 좋은 보스턴의 병원에서 수련을 마쳤지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산병원과 국립암센터로 초청받아 가서 일하던 때. 사사건건 국가 보험공단의 어처구니없는 시책들과 부딪쳤죠. 보람된 경험은 한국에서 소아 뇌종양 학회를 만들어 신경외과, 신경과, 치료방사선과, 병리학과, 통계학과 등의 전문분야의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치료 protocol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던 일이에요.
 6. 의대 3학년 여름 거제도 무의촌 진료 갔던 일이 생각나요. 의료혜택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의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7. 의사는 내 적성에 딱 맞아요. 다른 선택이 있다면 문학과고요.
 8.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부모로서의 가장 큰 책임이죠. 다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목표를 남이 비웃을 정도로 높게 잡고 향후 5년 10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보고 그것을 위해 미리 정진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석좌교수, 병원장, 총장 등등.
 9. 48세 때부터 달리기를 했어요. 막 대학에서 tenure를 받을 즈음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젠 학교에서 나를 쫓아낼 사람은 없으니 밤새 연구 논문 쓰느라, 강의 준비하느라 씨름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 몸을 가꾸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운동 부족으로 몸은 불어나고 숨도 차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동네를 달려 끝내는 보스턴 마라톤도 3번이나 뛰었고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는 성화 봉송도 했죠. 달리기는 2년 전 폐암 수술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했어요. 덕분에 폐활량이 뛰어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종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10. 새벽에 산책하고 낮에 텃밭 정원 일을 하고 유기농 채소를 먹으면서 틈틈이 독서하며 소일하고 있어요. 독서를 나의 취미라고 말하면 웃는 사람도 있지만 백수가 된 지금은 독서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인의 독서량이 평균 1년에 70권 이상이라 저는 이보다 한두 배는 더 읽으려고 노력해요. 아틀란타에 독서 클럽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재미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 시력이 좋아 감사하고요.
 동창회지 시계탑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면서...

창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동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학회가 열리면 그때 뵙겠습니다.



최태웅 동문

(2002 졸업, 혈액종양내과) North Carolina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의대 졸업 후 3년간의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치고 2005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먼저 그 해 5-6월에 Miami, FL에서 observership을 했는데, 동기 두 명과 아파트를 렌트에서 함께 지냈었지요(현재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혈액종양내과 재영광,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의학과 개업의 안상민). 미국에서 기초 의학 분야 박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컸는데 강현석 선배(00졸)의 소개로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 있는 면역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9월에 Saint Louis, MO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St. Louis에 도착했던 날, 마침 그곳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던 동기의 아파트에서 신세를 졌습니다(현 예일대 병리과 허원제). 처음에 2-3년 생각하고 시작했던 실험실 생활이 결국은 4년으로 연장되었고, St. Louis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났으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박사를 하려던 생각을 바꿔서 St. Luke's Hospital에서 내과 레지던시도 하였고요.

2. 골수이식 전문의가 된 계기는?

저는 혈액암(blood cancer), 그 중에서도 다발성 골수종을 주로 진료합니다. 고형암(solid tumor)에 비해서 혈액암은 클론형성능(clonality)이 더 뚜렷한 질환이어서 치료 효과가 있다면 좀더 극적으로 환자 상태가 좋아지기도 한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은 사실 면역학 연구실에 있을 때 많이 해봤던 실험기법인데, 이런 실험적인 치료가 혈액암 환자들 경우 '완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골수이식이 면역치료의 시작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혈액암 치료제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골수이식의 비중이 앞으로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골수이식은 계속 시행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Pittsburgh 대학에서 3년 과정의 혈액종양내과 펠로우쉽 수련을 마친 후에도 Stanford 대학으로 가서 골수이식 펠로우쉽 수련을 2년 더 했습니다. 직장을 잡을 때 골수이식이라는 시술에 집중할 것이냐 질병 중심으로 전문 진료 분야를 특화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었는데, 마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Duke대학에 있어

서 2017년 8월에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이라는 하나의 질환을 깊게 팔 수 있으면서도 항암치료, 줄기세포이식, 세포치료 등을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모두 제공할 수 있는 Duke의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3. 혈액내과 의사로 사는 매력과 어려움이 있다면요?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관해(remission)' 상태가 유지될 때 보람이 큼니다. 힘들게 얻은 좋은 결과이니 이 때를 최대한 즐겨야 한다고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개선된 항암치료 덕에 예후가 좋아져서 관해가 꽤 지속되는데, 그런 때에는 외래에서 병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 환자분들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 3년이 넘어가면 병이 슬슬 재발합니다. 그 후에는 여러가지 약을 쓰며 어려운 경과를 밟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해볼 것은 다 해본 경우에도 환자분이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무리한 항암치료를 이어가기를 원할 때는 참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호스피스 관련 가족 상담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같은 신앙의 이름 아래 꿈에 나온 계시 내지는 헛된 희망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하거나 엉뚱한 치료를 원하실 때에는 답답합니다. 호스피스를 포기라고 생각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시간 동안 반복해서 내원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등 안타까운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드물지만 의외로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의사로서 객관적인 의견은 드리되 환자분들의 희망 사항을 존중하려는 편입니다.

4. 병원 일과는 어떠한가요? 병원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두 번 종일 외래 클리닉이 있고요, 일년에 3개월 정도는 병동 일을 합니다. 환자 수가 계속 늘어 가서 해가 지날수록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의 기대여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Duke 대학병원은 950여병상 규모로 Durham, NC에 있고, Duke Children's Hospital and Health Center, Duke Regional Hospital, Duke Raleigh Hospital과 더불어 Duke University Health System을 이루고 있습니다.

Duke 하면 심장 분야가 제일 유명하지요. 1960년대 초에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에 혁명을 일으켰던 심장외과 의사인 Dr. David Sabiston이 Duke에 있었고, 2019년에는 여기 심장이식팀이 미국 내에서 최초로 뇌사자가 아닌 심장사성인 공여자의 심장을 수여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5. 판데믹을 겪으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20년은 판데믹 때문에 아주 특별했는데요, 한동안 골수이식을 하지 않아서 병원 일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집 잔디 관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뭇가지를 톱으로 베고, 뿌리도 제거하고, 잔디도 단정하게 깎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돌움형 화단(raised garden) 이랑 파티오(patio)도 만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2021년에 들어와서 병원이 거의 정상화되면서 다시 바빠지는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것이 판데믹 관련 큰 변화 중의 하나일 텐데, 저의 경우는 병동은 물론이고 외래에서도 면역억제제를 쓰는 환자가 많아 이전부터 늘 마스크

를 쓰고 일해왔습니다.

6. 학창시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본과 시절에 조용하게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그냥 보통 정도였고요. 써클 활동으로 의대-간호대 연합 합창단을 열심히 했는데, 본2때는 부지휘자, 본3때 지휘자를 했어요. 지휘 관련 세미나에 등록해서 지휘법을 배우기도 했는데, 지휘란 사실 정해진 형식이 없고 그 곡을 해석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공연할 곡이 정해지면 대학로의 바로크 레코드와 강남의 타워 레코드에 가서 CD를 사곤 했고요, 악보는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려워 미국 Amazon에서 구매 해 국제우편으로 배달받았었습니다. 악보가 없는 곡은 음악을 들으며 NoteWorthy Composer (NWC)라는 소프트웨어로 채보를 해서 악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했던 공연 중에는 West Side Story 뮤지컬의 노래 뿐만 아니라 연기도 넣어 갈라 콘서트처럼 구성하여 관악 캠퍼스의 문화관에서 공연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본3때에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한 대기업이 후원하는 대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뽑혀서 '유전자치료'를 주제로 미국에 있는 연구소들을 여기저기 다녔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녀왔더니 2000년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의약분업' 파업이 진행 중이어서 분위기가 무척 암울했었지요.

7.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점?

저는 미주리,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아봤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속한 남부지역이 좀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 Confederate flag(남부연합기)가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별로 minority(소수민족)라는 생각을 안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는 Cary라는 지역은 아시아계 인구가 꽤 많은 지역이라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안에서는 diversity(인종 다양성)가 있는 편입니다. H Mart도 몇 년 전에 생겼고요. 교회 선택이 늘 어려운 문제인데, St. Louis 시절에는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이후에는 미국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인들로 구성된 소그룹에 들어가서 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minority라고 주눅들지 말고 자신감 있게 커나가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diversity가 괜찮은 곳으로 선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8. 미 중부, 동부, 서부를 아울렀던 수련 과정이 궁금합니다.

2009년에 St. Louis에서 내과 수련을 시작했을 때는 임상 진료에 대한 감각이 녹슬어서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4년동안 실험실에서 생쥐 실험만 하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니까, 영어도 힘들고 일도 느리고 해서 고생했지요. 2-3년차 레지던트 사이에서는 혼자서 늦게까지 차트 쓰고 있는 인턴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컨퍼런스 시간에는 조용한 인턴이었고요. 2년차 되면서부터는 적응이 되어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2012년에 피츠버그로 가서 혈액종양 펠로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업무량이 참 많은데다가 야간당직도 해야하는 수련 프로그램이라서 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국분들과 교류도 많아져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떠날 때 즈음에는 피츠버그가 꽤 좋아져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Stanford에서 했던 골수이식 펠로우 과정은 당직 때문에 힘들기는 했어도 덕분에 이식과 CAR-T

치료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지요. 그때 Menlo Park에서 살았던 2년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캘리포니아를 떠나던 날 아들 녀석이 차 안에서 영영 울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 수련 때문에 가족을 미국 여기저기로 계속 끌고 다녀서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가능하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지금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피츠버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갈 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옮길 때 가족과 자동차로 대륙 횡단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같이 Podcast 듣고 음악 듣고 하면서 주변 경치를 같이 즐겼던 때가 참 좋은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Arizona의 Monument Valley에 있는 통나무집에서 올라다 본 밤하늘에 쏟아질 듯 많았던 별들을 두고두고 얘기하곤 합니다. 또 하나의 추억을 쌓으러 올 여름에는 Upper Michigan에 있는 Pictured Rocks National Lakeshore로 휴가를 떠납니다.

9.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말 일정은?

최근 들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ard work(마당 일) 하다 보면 땀도 흠뻑 나고 운동도 어느 정도 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운동은 아니죠. 아내의 권유로 올 가을부터는 주말에 골프를 배우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족이랑 같이 라운딩도 하고 그러면 운동도 되고 좋을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테니스 연습을 도와주거나 테니스 시합이 있으면 같이 갑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주말에는 이것저것 마당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합니다. 지난번 휴가 때에는 2016년에 출간된 <When breath becomes air>라는 책을 읽었는데, 시계탑 독자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저자인 Dr. Paul Kalanithi가 스탠포드 신경외과 수련을 마쳐가고 있던 때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 끝에 3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겪었던 과정들을 담담하게 서술한 책입니다. 뛰어난 의사인 동시에 글솜씨도 대단하고, 의대 들어가기 전에 영문학, 과학 및 의학의 역사와 철학을 전공했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지요. 제가 있었던 시기랑 겹치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2년을 보냈던 경험이 있다보니 더 감정이입이 되더군요.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내릴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 7월 새로운 시작,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미국에서 수련 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씀은?

혈액암 분야에서는 지금 세포치료(CAR-T or TCR-engineered therapy)가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에게 세포치료를 좀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CAR-T service나 pager coverage 등의 업무가 추가될 테니까 앞으로 좀더 바빠지겠지요. 전공을 정하는 것을 고민하는 후배분들께는 향후 20년 정도 그 분야를 계속 파고들고 고민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끌리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혈액학자들은 blood smear(혈액도말표본) 관독을 하면서 특이한 형태를 발견하게 되면 너무 재미있고 흥분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분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급여, 근무 조건, 지역 조건 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런 조건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인터뷰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끝)

장진호 동쪽 7사단의 붕괴

1950년 28일 장진호 동쪽 후동리와 풍유리 안쪽 지역에서 싸우고 있던 10군단 7사단 31, 32연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었다. 28일 아침 10군단 장 알몬드는 하갈우리의 미 해병 1사단을 방문하고 현 상황을 협의했으나 알몬드는 미군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알몬드는 하갈우리에서 장진호 동쪽 후동리에 있는 31연대장 맥클린 대령과 32연대장 페이스(Faith) 중령을 만나 중공군은 '북으로 도주하는 패잔병'에 지나지 않는 군대라고 하며 페이스 중령과 그 주위에 있는 병사 두 명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수여 한 다음 수송기를 타고 떠났다. 화가 난 페이스 중령은 가슴에 단 훈장을 잡아떼어 "싹할" 하면서 땅에 팽개쳤다.

31연대장 맥클린 대령은 2대대 병력이 도착하면 알몬드가 원하는 대로 복진하겠다고 알몬드 앞에서 장담했다. 그러나 2대대 병력은 아직도 함흥에 있었다. 그는 앞에 나타난 중공군을 2대대 병력으로 오인하고 그쪽으로 혼자 달려가다가 부상을 당하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사흘 후에 사망했다. 페이스 중령이 31연대와 32연대의 지휘를 모두 맡게 되었다. 그러나 통신 두절로 두 연대를 한꺼번에 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페이스 중령은 두 감제고지(높은 지역에서 경계할 수 있는 진지) 확보에 실패하고 11월 29일 새벽 3시경 모닥불을 피우고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가 중공군의 급습을 받고 견디다 못하여 철수하기로 결심했다. 주둔지에 있는 모든 보급품과 장비를 포기하고 전사자의 시체도 버려둔 채 떠났다. 의외로 중공군의 공격이 없어서 순조롭게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페이스 중령은 후동리에 있는 전차 부대와 함께 하갈우리에 있는 해병 1사단과 합류할 계획이었다. 중공군은 미군과 싸우기보다는 미군이 버리고 간 군수물자를 노획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풍유리 강 하구까지는 무사하게 후퇴했다. 그러나 전차부대는 이미 하갈우리로 후퇴한 후였다.



당황한 맥아더

1950년 11월 28일 맥아더는 워싱턴 합동참모본부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전투 병력의 현 상태는 중국 공산당이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준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본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전문을 보냈다. 인민군과의 전쟁을 준비한 미군은 예상치 않은 중공군을 적으로 맞이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새로운 적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해도 미국정부에서 자신에게 준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을 부정하여 미 정부로부터 38선 이북 진격 허락을 받은 맥아더의 철면피한 변명이었다. 그날 저녁 맥아더는 주일 미대사관에서 극동군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극동 해공군 지휘관, 작전참모와 정보 장교 윌러비, 야전 사령관 워커와 알몬드가 참석했다. 8군 사령관 워커는 평양 북방 청천강 근처에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알몬드는 장진호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진격할 것을 것을 주장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맥아더는 일문드와 워커를 따로 불러 "8군은 평양 방어를 해 보다가 측면이 위협

삼수갑산과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II

은 기 철(71, 남가주)

받으면 바로 후퇴하고 10군단은 장진호에서 철수하여 함흥과 흥남 해안에 병력을 집결 시켜라"라고 명령했다.

맥아더의 철수 명령을 받은 알몬드는 11월 30일까지 해병 1사단에게는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알몬드는 해병대가 중공군과 교전하는 동안 미 육군 10군단 병력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는 심산이었을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미 해병대 1사단의 철수와 페이스 중령의 전사



1950년 11월 30일 아침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맥아더가 원자폭탄을 쓸 수 있게 허락할 수 있다"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론이 들끓었고 유엔 각국은 한국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휴전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10군단장 알몬드는 경비행기를 타고 하갈우리에 나타나 해병대 1사단장 스미스 장군에게 전 병력을 하갈우리에 집결한 후 편제화기와 장비를 파괴하고 수송기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하고 떠났다. 그러나 그는 수송기로 후퇴 시키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면 끝까지 남아서 활주로를 지켜야 하는 병력을 수송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스미스 소장은 10군단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그들의 협조 없이 해병대 자체의 힘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겠다고 작전참모에게 자신의 결심을 토로했다. 당시의 미국 언론과 정부는 미 해병대를 포기한 상태였다.

7사단장 데이비드 바 소장은 알몬드가 스미스를 방문할 때, 동쪽 페이스 부대를 방문하고 철수 명령을 하달했다. 페이스 중령은 철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해병대의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수백 명의 부상자 수송을 위해서 항공기 지원이 필요했다. 이 요청을 받은 스미스 소장은 병력 지원을 거절하고 항공기 지원만 허락했다.

페이스 부대가 후동리에 도착했을 때, 크게 기대했던 전차부대가 이미 하갈우리로 떠난 후였다. 여기서 페이스 부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전멸했다. 페이스 중령은 수류탄에 맞아 전사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7사단장 바 소장이 전차 부대를 미리 철수시키고 페이스 부대를 중공군의 미끼로 던져 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망가진 부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 손실을 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페이스 부대에는 카투사로 미군에 소속된 한국인들이 많았다.

미 해병대가 예상을 뒤엎고 무사히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훈련된 미 해병대의 전투력 외에 중공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중공군은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같은 지점으로 반복해서 돌격하는 작전을 되풀이했다.
2. 미군의 월등하게 우세한 화력과 공

군력의 쉬운 목표물이 되었다.

3. 중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여서 탄약 등 보급이 어려웠고 작동하지 않는 무기가 많았다.

4. 중공군은 형편없는 보급을 미군 기지를 약탈하여 충당하려고 했다. 따라서 보급기지를 공격하지 않았다.

5. 보급이 부족한 중공군은 미군보다 추운 날씨를 견디기 힘들었다.

그 결과 중공군의 전사자 수는 미군의 10배 내지 50배에 달했다. 스미스 소장이 하갈우리에 건설한 활주로는 미군 철수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다. 보충병 500명이 수송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었고 특히 부상자들은 이 활주로를 없으면 대부분이 사망했을 것이다. 동쪽 페이스 부대가 전우의 시체들을 모두 버리고 황급하게 퇴각했던 반면에 미 해병대는 낙하산 전에 싸인 시체 85구를 매장하고 철수했다. 이 시체들은 북한으로부터 회담을 통해 나중에 모두 돌려받았다.

하갈우리 주민들의 협조

이종연 중위는 통역장교로 미 해병대 1사단과 같이 인천상륙 작전과 서울 수복에 참전하고 11월 14일 하갈우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차 하갈우리 이장을 찾아가서 앞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종연 중위는 미국으로 이민, 변호사가 되어 92세로 생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갈우리에서 13킬로 떨어진 곳에 산하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11월 24일 이 마을 주민이 하갈우리 사단 본부에 나타나서 중공군이 자기들의 집을 다 차지했다고 제보했다. 어느 날 북한 공산당에 협조적인 마을 간부가 중공군의 숙소가 필요하니 모두 집을 비우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방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급하게 진격한 중공군은 밖에서 자면 모두 얼어 죽을 판이었다. 마을에 머물면 미 공군의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이 점도 있었다. 이 제보를 받고 미 공군은 즉시 산하리를 폭격하여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모두 하갈우리 미군 주둔지로 몰려왔다. 미군은 이들을 막사에 머물게 한 다음, 군에 필요한 작업을 시키고 후한 임금을 주었다.

미 공군은 보급품을 낙하산에 매달아서 떨어트렸는데, 하갈우리 사단본부 외에 주위 산악지대에 떨어지는 보급품이 많았다. 이 보급품 수거에도 주민들이 동원되었고 작업 중에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람들도 많았다.

집을 빼앗긴 하갈우리와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은 화가 나서 미군에게 중공군의 규모, 주둔지, 공격 시기 등 중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주었다. 케어리 소위는 주민 12명을 선정하여 정보대를 만들고 통역장교인 이종연 중위와 같이 일했다. 이종연 중위와 케어리 중위는 중국 말에 능숙한 주민 두 명을 중공군에게 접근하게 했다. 중공군이 11월 28일 해가 지면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공군이 서남쪽 8킬로 지점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격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고 공격 지점이 서남쪽임을 알고 병력을 이곳에 집중 시켰다. 중공군은 예상했던 시간에 이들을 잘 막아 낼 수 있었다. 넓은 벌판이었던 하갈우리는 사방이 적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적은 병력으로 방어하기 힘든 주둔지였다. 주민들의 정확한 정보없는 수적으로 크게 우세한 중공군을 막

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주민들이 수 많은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황초령 고개에서 버려진 피난민들

1950년 12월 5일 미 해병들은 하갈우리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막사에서 생활하던 주민들과 주위 마을 주민들도 이들을 따라나섰다. 미군에게 협조했던 주민들과 예수교 신자들이 많았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신자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제각각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부대 후미에 붙어서 따라왔다. 인민군이 피난민 대열에 끼어들어 있다가 안심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미군을 사살하는 전술을 써왔기 때문에 피난민을 미군 대열 중간에 넣어 주지 않았다.

12월 10일 오후 3시 미군과 피난민 대열이 고도리와 진흥리 사이에 있는 황초령 고개 근처에 도달했다. 날씨는 영하 45도였고 바람까지 심했다. 피난민들은 가파른 고갯길을 우마차까지 끌고 올라갔다. 어느덧 날이 어두어 지고 자정이 가까웠을 때 이들은 도수관 위의 시멘트 길에 거의 도착했다. 도수관 위에는 있는 수문교가 파괴되어 있어서 미군은 임시다리(담교)를 설치해야 했다. 미군은 무거운 탱크가 통과하다가 담교가 파손될 것을 염려하여 전차부대를 맨 마지막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피난민 대열은 전차부대 뒤를 따라갔다. 다리 건너에서는 병력이 모두 통과하면 담교를 폭파하기 위해서 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리 앞 1500미터 지점에서 맨 앞에 가던 전차의 브레이크가 동파되어 정지했다. 길이 좁아서 뒤에 따라오는 탱크가 우회해서 갈 수가 없었다. 당황한 전차병들은 9대의 탱크를 버리고 다리 쪽으로 도망쳐 버렸다. 중공군은 피난민 속에 섞여서 따라오고 있었다. 피난민 대열에서 중국 말 액센트가 짙은 영어로 투항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기관총으로 무장한 중공군 5명이 앞으로 나왔다. 즉시 전투가 벌어졌다. 피난민 대열에서는 "많아, 많아" 하는 피난민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피난민 대열과 주위 언덕에 숨어 있던 중공군의 빗발치는 사격이 시작되었다. 해병들도 응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피난민이 죽거나 다쳤다. 미군이 황급히 다리를 건너자 공병은 담교를 폭파했다. 1950년 12월 11일 새벽 2시 30분이었다. 이후 피난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흥남 철수



미 해병대 1사단과 10군단 병력이 진흥리에 도착하자, 12월 11일 맥아더는 총퇴각 명령을 내렸다. 이 당시에 미군의 병력은 중공군의 병력보다 많았으며, 화력과 공군력은 비교도 안될 만큼 우세했다. 미군에 맞섰던 중공군 9군단은 미 해병대의 공격, 추운 날씨, 그리고 부족한 보급 때문에 거의 와해 상태였다. 중공군 야전 사령관들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말고 휴전할 것을 제안했으나 마오쩌둥은 적화통일을 고집했다.

중공군은 퇴각하는 미군과 국군을 공격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공격했다면 아마 극심한 피해를 입고 퇴각했을 지도 모른다. 1950년 12월 15일 미군은 흥남 앞바다에 무려 2000척의 배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철수 작전을 시작했다.

김백일 제1군단장과 <다음면에 계속>

어이쿠! 4 · 29

이 원 택(71, 남가주)



역사에서 가정은 금물이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 격이라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바보이다.

19년 전 나는 어쭙잡게 롱비치 한인상공 회의 소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폭동이 나자 아르메니아계 동료 의사가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할걸...' 하길래 그냥 깃등으로 들어 넘겼고 그다음 날인가는 롱비치 시장이 초청한 '그랑프리' 개막식 귀빈석에 앉아있었다. 옆에 있던 흑인 경찰국장은 '걱정 없다'고 했으나 신문기자가 일부러 나를 인터뷰하자면서 한·흑 관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약 20%가 흑인 환자로 이들은 거의 <메디칼> 주 정부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푸대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문제는 없었고 동생과 합작해서 하는 롱비치 북부에 위치한 <Won's 가구점>도 약 1/3이 흑인 고객이었지만 특별히 인종 갈등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밤에 폭도들에 의해 유리창이 박살 나고 자잘한 소가구들이 약탈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때 계약직으로 썼던 흑인 배달원이 자리를 지켜줘서 그랬는지 더 큰 피해는 없었고 가구점이 그 지역 <재해 대책본부> 역할을 해서 경찰차가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친했던 경찰국장도 두어 번 둘러서 격려를 해주고 갔다.

롱비치 경찰서는 자체 경찰학교도 있고 인력이 8백여 명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였는데 인구 대비 흑인 경찰은 얼마 안 되었고 시의원들도 모두 백인 계통이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경찰에서 잔뼈가 굵은 서민 출신이라 아마도 술한 따돌림을 당하고 나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임에 나가면 내 옆자리에 와서 앉곤 하고 미국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가정 초대도 해 주는 등 은연중에 나와 친해지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백인 시장이 초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이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미국 역사를 너무 몰랐고 무의식적으로 흑인들을 싫어했음이 분명했다. 이유가 어쨌든 싫은 것은 싫은 것이지만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긴 몰라도 무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래서 피하게 된다.

<전면에서 계속> 미 10군단 소속 민간인 고문관 현봉학은 10군단장 일본드를 설득하여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수송하게 했다.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의 레너트 라루 선장은 배에 탑재한 무기와 장비를 내리게 하고 피난민 1만4천 명을 태워 부산으로 무사히 탈출 하게 했다. 철수 작전의 마지막 날인 1950년 12월 24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이 배를 타고 피난 할 수 있었다. 그가 개마고원과 백두산에 대한 애착이 각별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려 10만 명의 피난민은 배에 탈 수 없었고 그들은 쓸쓸히 육지로 남쪽으로 향했다.

남북통일의 꿈을 안고 복진했던 국군은 잠시 점령했던 북녘땅을 뒤로하고 미군을 따라 퇴각했다. 지각 있는 국군 장군들에게는 아마 미군이 조금만 성의껏 싸워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왜 <왜놈·퇴놈> 했으며 대원군이 왜 쇄국정책을 폈겠는가? '모르는 게 약이다'는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얘기고 이제 모르면 딱 죽기 좋은 세상이 됐다.

뭐니 뭐니 해도 인종차별은 생존경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흑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텃밭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착취한 돈으로 자기들을 무시하고 백인 쪽에 빌붙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유감이 없을 수 없다. 흑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니꼽고 더러운 꼴 다 참아가며 힘들게 돈 벌어서 상류사회로 진출하려는데 너희들이 왜 단지 걸고 지랄이나~ 억울하면 출세해라, 출세해!

그런데 그 출세라는 게 그리 쉽나? 남을 올라타야 되는데, 말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그동안 니들이 거드름 피우던 거 싹 불 질러 버리고 맨주먹으로 불어 불꺼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문명을 다 파괴하자는 말이나?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육체적인 기운보다 정신적인 지식이 힘이 되어왔다. 아는 것이 힘이다.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도 사전을 쓰면서야 흑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길들여 왔다는 것을 알았다.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했으며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는지도 나중에야 알게 됐다. 모두들 쉬~쉬~ 했으니까~.

현금 코로나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몰라서 그렇다.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린이들에게나 먹혀들어 갈 만한 일차적, 원시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무식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유식한' 트럼프 같은 선동가들한테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제창하는 바로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민족에 대한 이민 역사를 뚜렷하고 정확하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플로이드 사건처럼 자꾸 '어이쿠~ 어이쿠~' 하면서 뒷다마 치기에 바쁠 것이다.

철수가 완료된 후 흥남부두는 폭파되었다. 장진호에서 발전된 전력으로 발달된 흥남 공업지대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평화로운 시절에 민초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던 비료 공장은 전쟁 시에는 적을 이롭게 하는 시설에 불과했다.

삼수갑산에서 싸우다가 돌아오지 못한 미군, 국군과 민간인들의 명복을 빈다. 장진호 전투는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비참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민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한이 쌓였다. 한 많은 노래 '군세여라 금순아'와 영화 '국제시장'이 한국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유이다.

참고: 소피니언 디에아 장진호 전투 시리즈 This Kind of War 한국전쟁 미군철수 / 해병대

2021년 여름, 구름을 위한 두 편의 시



서 량(69, 대뉴욕)



수제비구름

이제 와서 당신을 애뜻하게 익힐 수 있다니 나보다 어린 나이 내 옛날 부모도 희뿌연 어항 속 금붕어도 무궁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망설임 끝에 누구나 과거를 등지고 돌아서는 거래요 네모 반듯한 제사상에 기우동 세워진 할아버지 사진이 허상이었어 여름방학 키 큰 노적거리 시골 할머니 집 부엌에서 내게 꼬리치며 달려들던 강아지도 허상

트럭 운전사가 껌을 질경질경 씹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내 쪽으로 다가온다 트럭은 거대해 우주의 운동신경도 허접한 동영상일 뿐 저분하게 흩어지는 수제비 물방울 겹치듯 포개지는 사랑 산마루 언저리로 동동 뜨는 수제비구름도 거대해 어머, 영원한 아침은 징그러워 나는 확고한 하늘빛으로 얼어붙는다 당신을 향한 거대한 그리움에서



구름의 속도

커다란 구름 덩어리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기류를 헤치고 질주하는 것을 보았다 우주탐색 로켓처럼 당신과 내 사이를 승승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거야 구름의 가장 무서운 습성은 과속이 잦다는 것 구름은 교통 단속을 받지 않습니다 구름은 절대로 하늘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그래서 무진장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실성을 해도 누가 뭐라 탓하지 않아요

핏빛 석양을 깨물어 먹는 날짐승 공룡들이 원시의 날개를 펴리며 육중한 하늘을 절단한다 공룡의 과속은 지구와의 결별을 위한 수단이다

구름이 시야에서 필연처럼 사라진다 구름의 행적을 다시 찾아서 내 알뜰살뜰한 원근법 안으로 끌어드릴까 하는데 총알보다 빠른 구름의 몸놀림을 맨눈으로 쫓아갈 수 있다잖아요 커다란 구름 덩어리가 당신과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구름의 속셈을 대충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나 이제 구름을 쫓아가야겠어 당신만 괜찮다면 구름을 슬쩍 추월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된 작품과 함께

홍 건 (70 시카고)

2013년에 오랫동안 일을 하던 병원에서 은퇴를 하고 에티오피아의 명성병원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2018년에 돌아와서 2-3 개월씩 단기로 다른 나라의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꿈은 때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깨어지고 꿈쩍없이 좁고 갑갑한 콘도 방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중국 전역에 퍼지고 나아가서 아시아의 나라들에만 한정된 바이러스라는 처음의 생각이 무너지고, 미국에도 환자가 발생하더니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늘어나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TV의 뉴스를 지켜보면서 또한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실시간의 소식들이 우울하게만 들려왔습니다. 학교는 물론 식당들과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밖에 나갈 경우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격리라는 새로운 생활 습관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에 꼭 틀어박혀 있으면서 소셜 미디어로 접하는 이미지들을 한두 개씩 캔버스에 그리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리즈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물론 다니던 병원에 가서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찍었으면 좋으려만 나이도 있고 적극 말리는 아내의 의견을 따라 컴퓨터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처음 작품(위)은 “앰불런스로 도착한 상황속에서, 코로나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장면”으로 시작하였고,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달리는 간호사들과 응급 처치 요원들의 이미지는 매일 수없이 반복되어 TV 화면에 나타났습니

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여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숨을 쉬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모습이 두 번째 작품이었고, 이 또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상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카고 시장 Lori Lightfoot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격리를 하게 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카고 시청 앞 데일리 플라자 광장에 있는 유명한 피카소 조각과 시카고 미술관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두 사자상에 대형 마스크를 씌운 소식을 접하고 얼른 달려가서 빠른 스케치와 함께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두 곳에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없고 마스크를 쓴 조각상을 그림으로 캔버스에 남겼습니다.

몇 주면 지나가겠거니 했던 처음의 기대와 달리 몇 달이 지나도 바이러스의 확진자는 늘어나면서 사망자 숫자 또한 날로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는 Livonia 수녀원의 Felician 수녀들이 13명이 집단으로 사망하고 12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가슴이 아픈 뉴스이기에 그분들의 사진을 모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PPE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금도 쉬 새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모습이 뉴스에 나오면서 어려서 우표를 수집하던 흥분에 싸였던 어린 시절과 같이, 그분들의 사진을 모으고 두 개의 캔버스에 담아 노고를 감사하며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많은 사망자 속에는 의료진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2020년 11월의 통계에 의하면 3천여 명의 의료진이 생명을 잃었는데 220명의 의사들과 460명의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을 모으고 그들의 희생과 아까운 삶을 기리면서 두 개의 캔버스에 나누어 작품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은 Dr. Frank Gabrin은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그 왼쪽 옆에는 저와 같은 영상

의학과 전문의로서 74살의 Dr. David Wolin 입니다. 그리고 같은 캔버스 중간 줄 왼쪽에서 두 번째는 유일한 여자의사인 28살의 Dr. Adeline Fagan인데 산부인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환자를 돌보던 젊은 장래가 촉망받는 아까운 의사입니다. 이 작품들은 2021년 1월에 마쳤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목숨을 잃은 의사들뿐 아니라 장시간 희생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인디애나 미시간 시티에 위치한 루베즈닉 아트 센터에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작품들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개인전을 열었으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온 후에 교수직을 맡게 된 시카고 의과대학(Chicago Medical School, Rosalind Frankli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에서 매년 A Creative Journal로서 Synapses 라는 잡지를 발행하는데 작년 2020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그린 그림 두 점을 내어서 인쇄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제로 작품을 모집한다는 이메일을 받아서 작년에 개인전에 출품한 그림들과 새로 코로나로 죽은 의사들을 그린 두 점의 작품을 보내고 두 개 정도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낸 모든 작품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인쇄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ynapses 5번째 잡지의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을 Zoom으로나마 가지게 되었는데 저보고 그림 부분에 선발된 작가를 대표해서 10분 정도 소감과 함께 작품을 소개하는 스피치를 해 달라고 하여 5월 5일 오후 4시에 참가하였습니다. Synapses 잡지의 모든 그림은 다음의 링크를 열어보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Synapses Vol. 5 (2021) (pubhtml5.com)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이 될지는 모르고 미국에서는 백신의 접종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백신을 구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요원한 일이고 또한 변형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람에 아직도 해외여행을 하여 선교병원을 다시 방문하기는 당분간 힘들 것 같고 할 수 없이 방 안에서 그림을 계속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계속〉 얼싸 좋다 하고 툭 올라 타던 썰라가 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을 억지로 안아 태우고 애니멀 쉼터로 갔다. 담당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서류에 싸인하고 썰라를 끌어내려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썰라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 계원에게 인계했다. 나오다 뒤돌아보니 썰라가 고개를 나한테 돌리고 나를 원망하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죄지은 놈 도망치듯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이들은 다 집을 떠나고 우리 둘만 집에서 살 때다. 결혼해서 미조리에 살고 있는 딸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내가 전화받은 후 내게 내용을 전했다. “미순이가 아주 귀엽고 영리한 개를 기르는데 그 개 어미가 또 새끼를 셋 낳았대요. 그중 한 마리를 우리한테 보내 줄 테니 기르라는데...” “또 개소리야? 처음부터 미순이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개를 집에 들여놓았다가 골탕 먹고 속 썩었는데, 이제 다시는 개 안 길러!”하고 악을 썼다.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만치 단단히 문을 박았다고 믿었는데 며칠 후 저녁을 먹는데 다시 아내가 개소리를 꺼냈다. “미미(미순이의 영어명)가 그러는데 이 개는 miniature schnauzer라고 아주 영리하고 또 죽보까지 따라오는 아주 순종이래요. 미미 말인즉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한번 길러보면 흠뻑 반할 거라고 장담하는군요.”

요란한 세뇌공작에 내가 또 슬슬 말려 들어가는 걸 눈치챈 아내가 호기를 놓칠새라 금세 말을 이었다. “그리고 원하면 빨리 이야기해야 된대요. 귀를 잘라서 귀가 뽕뽕하게 하늘로 뻗치게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대요.” 또 속는구나 하면서도 딸의 소원이라 거절 못 하고 응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어 신이 난 미미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서 썰 걸 오는 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개를 가져왔다.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온 천사란 뜻에서 에인절(angel)이란 이름까지 붙여서. 이 개는 miniature schnauzer란 이름이 말해주듯 다 커도 10kg밖에 안되는 작은 개로서 원래 독일 종이며 수염이 길고 대개 salt and pepper라 하여 회색에 검은색이 섞인 그런 개다. 여기서는 개를 데리고 여행하려면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되며 개집(kennel)에 식량과 물을 준비해야 비행기에 실어준다. 7주 된 에인절이 열 시간 이상 kennel에 갇혀 있다가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방광을 비우는 일이다. “아이고 기특해라, 열 시간 이상 참았구나 에인절!” 미미가 큰소리로 칭찬했다. 내 귀에 틀림없이 들리게끔. 이렇게 돼서 나와 에인절의 인연은 맺어졌다. 미미의 말대로 에인절은 정말 영리했다. 집안에서 실례하는 법이 거의

없지만 어쩌다가 그러면 우리 잘못이다. 그때마다 에인절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가서 숨어서 우리 눈치를 슬슬 보다가 우리가 화가 풀렸다고 판정한 후에야 방 한가운데로 나온다. 에인절은 이때까지 길렀던 여러 다른 개와 달리 주로 집안에서만 지내고 불일 볼 때만 밖에 나간다. 대개 같이 나갔다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혼자 내보내는데 실컷 놀다가 시간만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어느 해 삼월에 앵커리지 근처 ‘아리예스카’ 스키장 근처에 있는 친구 상장에 가서 일주일 지낸 적이 있다. 집이 아닌지라 혼자 내보내지 않고 반드시 같이 나갔는데 하루는 밖에서 난로에 땀 장작을 집어오느라고 문을 열려는 사이에 에인절이 짹째 밖에 나가 사라졌다. 깜깜한 새벽에 근처를 뱅뱅이를 돌며 찾았지만 못 찾고 차를 몰고 멀리까지 돌아다니며 “에인저-얼, 에인저-얼”하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맥없이 돌아오니 문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물었다. “찾았수?” “암만 찾아도 없어. 이것 큰일 났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찾아오겠지요 뭐, 그전에도 제시간 되면 돌아왔는데, 걱정 마세요.” “그건 집에 있을 때지, 여긴 타 동넨데 에인절이 어떻게 찾아와. 거참 내가 왜 생각을 못 하고 문을 열어놨는지, 이것 미치겠는데.” 스키고 뛰고 온 게 무척 후회되었다.

개는 가는 곳마다 오줌을 똥으로써 자기 영토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똥새로 자기가 돌아올 길을 알아낸다. 타 동넨라 그개 불가능하리라 생각되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다. 가끔 집 근처 전봇대나 신문에 개 사진과 함께 개 찾는다는 광고문을 볼 때마다 내가 하던 소리가 생각났다. “미친놈들, 그까짓 개 잊어버렸으면 그만이지 100불, 200불 현상금까지 걸고 광고를 내다니.”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웃음 치던 나라는 게 생각나자 씩씩한 웃음이 얼굴에 돌았다. “왜 웃으세요.” “음, 저...” 대답 대신 다시 묘한 웃음을 보였다. 오후가 되었다. 방 안에서 푸드득 소리 내며 타는 장작불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에 비치는 것은 에인절 모습뿐이었다. 답답한 가슴을 달래기 위해 문을 열고 밖에 나가 흰 눈이 덮인 먼 산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면서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데 갑자기 에인절의 윤곽이 들어왔다. 죄지은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문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어 문 열고 나갈 때 못 봤던 것이다. “아이고 에인절, 너 돌아왔구나. 어디서 무얼 하다 인제 돌아왔니? 춥다 어서 들어가자.” 역시 죄지은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슬렁 어슬렁 따라 들어왔다. 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개에 대한 정을 가질 기회의 유무에 달렸음이 분명해졌다.

어린이와 꿈

나두섭 (73, 남가주)

이 세상에 어머니라는 단어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는 어린이가 아닐까?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던 자식들을 길러 주었고 그리고 누구나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이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이 어린이들을 무심코 지나치기가 어려운 이유다. 어린이들은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대체로 외향적이다. 먼저 가서 말 걸고 행동한다. 어린이들이 있으면 집안에 생기가 돌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나이에 있을 때의 부부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아이들이 완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는 생기기도 전에 없어지는 일이 많았다. 혹시 아이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같이 염려하던 그런 때였다.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들이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기 때문이 아닐까? 빨간 머리 앤 (영어로는 Anne of Green Gables)이라는 말이 많고 주근깨가 많은 여자 고아 아이가 입양되어

자라는 이야기의 소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내용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통하고 표현은 영화로도 수없이 만들어진 'Little Women'과 많이 통한다고 느꼈다.

빨간 머리 앤에서 입양한 주인아줌마의 브로치 분실 사건이 있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라곤 아줌마의 오빠밖에 없었으므로 증거는 없었지만 앤에게 훔쳐간 것을 고백하라고 강요했다. 그러지 않으면 학교 소풍에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전전긍긍하다가 앤은 훔치지도 않은 것을 고백하기로 하였다. 소풍에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가지고 놀다가 호수에 빠뜨렸다고 하였다. 그 고백을 듣고서도 아줌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후에 브로치는 옷 수선하는 통안에 있던 스카프에서 빠져나왔고 그 후에야 앤은 소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아닐까? 앤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안 한 것도 하였다고 하였고 아줌마는 자기가 분실한 것이 우연히 나오기 전까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고쳐줘야 하겠지만 그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잘 생각해 보니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환경이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인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 아닌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는가?

어린이의 특성 중의 하나는 꿈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나는 소방관이 되겠다든가 아니면 축구선수가 되겠다든가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사춘기에 최고도에 달하여 신데렐라와 같은 작품은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꿈은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가지게 한다. 성취되는가 안되는가는 그 후의 문제다. 꿈이 있다는 것부터가 좋은 출발이다. 지금은 거의 상영되고 있지 않지만 'The Bohemian Girl'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한 오스트리아 귀족의 딸이 사냥터에서 아버지와 헤어져 집사의 손 아래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그 2막에 나오는 아리아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여인은 결국 아버지도 다시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 사랑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된다. 6살 때 헤어져 18살로 성장한 이 여인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꿈에서 깨어나라는 말도 있지만 꿈은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꿀 수 있다. 나이가 먹어간다고 꿈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꿈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평소 그리워하던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까?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함에 파묻힐 때 또는 따스한 미소와 시선 속에서 마음속 깊이 그려왔던 그런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 꿈이다. 보헤미안 걸은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지만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 친지 친척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감동스러웠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이다.

미술선생님

김병오(69, 버지니아)

강당을 몇 개로 나누어
만들은 특별 활동실에는
판자 벽이 흔들리는 미술班이 있었지요

도화지에 물감이 번지듯
치자빛 복도를 따라가면
어두한 교실문이 열립니다

戰後의 황폐속에 서 계시던 女선생님 한 분
가날프시고 안경을 쓰셨지요
양장을 하신 옆 모습 하얀 얼굴이
평생 두근거리는 슬픔으로 남을 줄은
내 나이 만 二學年 그 때도 알았지요

제라니움 화분 정물화를
그리다가 한 순간 다가오신
선생님과, 어쩌면 처음이고 끝이었던,
눈맞춤. 그 눈매의 아름다움에 왈각 쏟아지던
눈물을 지금도 기억 하니까요

내내 선생님은 안타까움게도 먼 자리에
계셨고 내가 그리던 제라니움 화분에는 눈물이 고여
도화지가 마르지 않았지요

그 雨期의 시작이었나봅니다.



El Dorado Park의 오리떼 (F/11, SS 1/320, ISO 200) / 나두섭 촬영

괴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에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Metropolitan Opera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온 세상을 흔들며 놓은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미디어를 통하여 보내준 오페라 스트림 (Opera Streams)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2020년 초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시작한 이 오페라들을 1년 내내, 12월 내내, 365일간 단 하루도 빠짐 없이 상영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음악을 만끽하면서 잠시 본인이 받았던 음악교육을 회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1950년부터 1960년 6.25 사변 직후의 어려웠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임시 건물은 현재 의과 대학교와 같은 장소에 있었지요. 즉 동숭동 당시 문리대 건물 (현재 박물관?) 길 건너편 현재의 의과 대학 기초연구실 본관을 지나서 언덕 위에 위치했습니다. 가교사처럼 만든 목조 2층 건물이었지요. 의대 학생들과 음대 학생들이 한 캠퍼스에 가장 가깝게 있었으니 서로 좋은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대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지 아니면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고 난 휴식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등교 시간이나 하학 시간이면 늘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음대생을 하나하나 노골적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놀리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누구는 예쁘다 치마가 짧다고 하면서 목소리도 크게 떠들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음대 졸업생들과 의대 졸업생들이 부부의 인연이 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의대 58년도 졸업하신 분들 중에 이정환-백운선, 이운순-고애자, 이상철-김정화 부부가 있겠고 59년 졸업하신 강상진-지윤연 부부 등 많은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음대 졸업생들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조금 더 이때 이야기를 드리면 전쟁 직후라 의과대학도 설비가 부족했다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감사하면서

김정화(미시간)

이 무렵부터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의학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들었습니다. 음악대학의 경우도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학장에 현재명 교수님, 본인의 성악 지도는 김학상 교수님이었지요. 화성학(작곡), 실기, 지휘법 그리고 매년 연말마다 시민회관에서 이남수 교수가 총지휘를 하던 전 음대생이 참여하던 베토벤 9번 심포니 합창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시설이 참 미비했지요. 필요한 악보나 레코드판을 구하거나 음악을 한번 들어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명동에 있었던 돌체 다방이나 혹은 종로의 르네상스에 가서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했지요. 성악을 전공한 본인은 어떤 날 이화대학 대강당에서 미국에서 온 성악가가 노래한 슈베르트 작곡인 <바위 위의 목동> 즉 <Der Hirt Auf Dem Felsen> 을 처음 듣고 감동하여 그 곡을 본인의 졸업연주회에서 부르게 됐지요. 클라리넷은 후배에게, 피아노는 김석에게 부탁

했지요. 그때도 그 악보는 김 지도교수님이 구해주었지만 레코드는 돌체 다방에 가서 신청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1960년 4.19 후 자유당 때 공직에 있었다고 해서 현재명 학장님은 사임을 하였고 그 후 곧 건강이 쇠약해져서 그 해 말에 타계하셨습니다. 지도교수이신 테너 김학상 님은 같은 해에 제자의 결혼식장에

서 축하 노래를 부르시다가 그 자리에서 뇌일혈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저에게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1965년 뉴욕으로 우리 부부가 왔을 때 정신과를 전공하시는 59년 졸업 강상진-지윤연 집을 방문하여서 놀란 것은 한국에서 학창 시절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었던 LP 레코드 판이 그 집 한쪽 벽에 가득하게 수천 장이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의 결과이겠지만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풍족한 곳으로 이민을 와서 55년 이상을 살았으니 감사해야지요. 그렇게 가난했던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박정희 군사혁명 후 당시 우리 졸업생들과 모든 기성 교사들은 모두 음악 교사 자격증 시험을 치렀지요. 그리고 저도 졸업 후 자신의 지역에 할당되는 용산구에 있는 선린상고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종로구에서 사는 친구 한옥순은 화동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로 가서 가르치기도 했지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

르겠지만 남자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을 힘들게 하기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럴 때면 학생들에게 엄하고 무서운 남자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던 기억도 납니다. 나의 시동생이 된 이상철(서울대학 수석 졸업)이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학생이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친구 한옥순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미디어를 통하여 보내준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많은 지나간 여러 생각이 떠올라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아옹다옹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감회가 무량합니다. 때로는 즐겁기도 힘들게도 느껴지는 시간이 어느덧 화살처럼 흘러서 나의 음대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남편과 그의 친구들도 여러분이 떠나셨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지난 1년 4개월 66주간 하루도 빠짐이 없이 수십 개의 오페라를 거의 다 번갈아가면서 저는 감상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Bellini의 'I Puritani, 청교도'에서 Premadonna, Anna Netrebko의 노래와 모든 연주는 환상이었습니다. Coloratura의 기교, 연기 등 모든 출연자들이 그 기본 재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겠지만 그런 바탕에 그들이 쏟은 노력과 연습이 힘을 합하여 그런 찬란한 명연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인류가 당면한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신건강으로도 평온을 되찾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한 메트로 오페라단과 그 계획을 추진한 모든 미디어와 자선 기관 요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2021년 6월

필자: 고 이상철(58) 동문 부인
서울음대 60년 졸업

현대 정신의학의 개요 II

-정신병의 개념의 변천과 이해

김 해 암(58, 대뉴욕)

존재성을 지켜가고 있다. 그러면 정신 치료는 치료 효율이 낮고 약물치료 보다 못한가?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떤 병은 정신 치료가 아니면 치료 불가능하거나, 약물 치료 시 같이해야 효율이 배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신과 의사를 양산하기 힘든 이유는 수련과정이 어렵고 길며, 다른 과에 비해 수입도 적다는 이유와 인간성에 봉사하는 정신이 요구되는 심리적 태도를 가지는 의학도가 많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본다.

정신과 의사가 가정의학과나 가정 주치의 역할을 넘어서 수 백 명의 환자를 책임지는 예방 의학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나며 이런 필요성에 호응하는 경향이 있고, 나에게는 수긍이 가는 정신 의학의 장래상이다. 의료 제도가 사회화되어 건강 관리가 국가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오면 정신 의학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흥미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코비드-19로 온 팬데믹이 가져오는 혜택이 있다면 부유층 환자를 선호하는 의학이 좀 더 대중화 되고 앞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공중 의학(public health)의 성격을 갖추어 가는 의료 제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7년 동안 한국인을 위주로 하는 AWCA(아시아인 기독교 여성 봉사 센터)에서 무보수로 7년 동안 매주 하루씩 봉사한 경험이 있다. 많은 귀한 사례를 보고 의사가 봐야 하는 중증 환자를 다루는 재미도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 사는 한국인도 봉사 활동이 쉽지 않음을 느껴 본 경험도 있다. 1990년 대 초에 위에 말한 봉사활동 전에 뉴욕시 플라싱 지역에서 한국인 상대로 봉사 활동을 하려고 유지들을 모아 KABHA(한국계 미국인 정신건강협회)라는 기치를 내 걸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학에서 정신 위생을 전공한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간호 치료사 등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분들이 매년 수십 명씩 졸업 함에 착안하여 봉사 센터를 조직했다.

뉴욕시 플라싱에 오피스를 만들고 매월 수십 명이 모여 강습 활동, 토의, 강연 등을 하였다. 일 년에 한두 번은 제약 회사의 도움을 받아 호텔에서 공개 강연을 일반 시민을 위하여 시행했는데 수백 명의 회원들을 한때는 자랑했으나, 봉사 활동은 결국 못하고 약 15년 후에 헤어졌다. 뉴욕시와 주 정부에서 보조도 있었으나 봉사라는 개념보다 어떤 이익을 찾을까 하는 문제가 이민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함을 배웠다.

이렇게 정신 건강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보급하려고 봉사하던 방법이 근년에 와서 완전히 바뀌었다. IT 산업의 발달로 Internet, video 등으로 공개 선전되고, 책으로 특히 Self-help Book으로 선전하던 시대는 가고 정신 치료 지식이

온라인상으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또 판데믹으로 대면 면접을 접고 원격 면접을 하게 되니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정신병이 난치병인 이유:

인간의 질병의 대부분은 육체적 병인 반면에 정신병은 마음과 육체의 병의 혼합체로 보는 것이 현대적 해설이다. 고대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귀신의 침범 아니면 장난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견지를 못 하거나, 눈이 멀거나, 간질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또는 마귀의 조작으로 설명하였다. 의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성분이 작동하여 간질병을 도발하고, 환청, 환상 그리고 광울병 등의 병리학 적 현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똑같은 성분을 가진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발병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상인 경우,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겼을 경우 몸은 계속 성숙해 가는데 마음은 병적 상태나, 미숙한 어린 나이에 정착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정신병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정신 박약증, 치매, 조현병, 자폐증 등이 그렇다. 나이는 성인이라도 어린이 같은 지능과 행동을 하면 정신병 환자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정신적 마음과 심리적 변화는 성장을 멈추고 있으니 약으로 치료를 해도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리고 정신 상태가 안정이 되더라도 성장 과정을 되돌아가 빨리 보충할 뿐 아니라 현실에 적합한 기능을 양성하려면 자력으로만 하기 힘들다. 조현병의 경우, 장기치료 요양소 같은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이 어떤 치료사들이 장기간 특수 환자를 지능적, 감성적인 성장을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다. 비용도 문제지만 치료자의 인격, 인품, 성실성 등이 관련됨으로 성공적인 장기 치료는 예부터 성공률이 낮고 발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난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데 있어 현대적 방법은 예방과 보조 치료, 개인 지도, 소아 정신 치료 등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신 정신 의학에서도 신경 생리학 검사, 심리 테스트, 유전체질의 점검 등을 한다 해도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과학이 따르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자폐증의 가족력이 있는 어린이를 어떻게 검사하고 진단하며 어린이에게 불편을 덜주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봄이 옳다고 본다. 그런 이유로 소아과에서 "성장, 행동 소아과"라는 새로운 영역을 수십 년 전에 개척해 오며 진단, 치료 전에 아동의 성장 과정을 부모나 보조사를 통하여, 행동으로 적극적 치료를 시도하고 있으나 묘책은 없다. 이런 현 상황에서 새 출발 하는 신혼부부, 또는 가족력에 유전 인자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신병 예방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는 동시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적어 본다.

-다음 호에 계속

치료를 통하여 보는 정신치료의 개관:

치료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데 있어 각자의 임상 기술을 평할 때 흔히 쓰는 공식이 3-3-3 분수를 이용한다.

대체로 개인 치료 환자 중 1/3은 완치되었고, 다음 1/3은 완치되어 가거나, 계속 장기 치료를 요하는 분 들이고, 나머지 1/3은 치료를 중단했거나 포기한 분들로써 연락이 두절되어 상황을 알 수 없고 병이 상존하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를 보면 이런 공식이 편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오피스 개업에서 다른 환자들의 인종별로 구별해 보니 50여 개국에서 온 분 들이고 수많은 인종, 종교, 6대륙에서 온 분 들이다. 치료를 받으려는 욕망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혜택을 얻어 간 다. 그 다음은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

정신 치료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처음부터 의심하거나 치료가 된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더 우려하는 나머지, 치료에 전념하지 않는 체념 또는 저항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나는 자기 분석을 2번 받았다. 처음은 정신분석 수련 과정에서 지정받은 2 분석가에 의하여 4년 반만에 종료하였다. 그 후 20년 후에 미국의 정신분석의 태두로 인정받아 온 Charles Brenner에게 전통 프로이트 학파의 분석을 받아 보려고 2년 반에 걸쳐 2차 분석을 받아 처음 분석이 잘 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 후 나는 일본 한국에서 Dr. Brenner을 대신하는 강연을 하는 기회도 가졌다. 돌아보건대 나는 첫 분석 수련을 위한 정신분석 과정에서 전통파와 비 전통파의 차이를 연구하는 기회를 찾고 연구하였다.

1960년 대에 나는 서울의대 1년 선배인 김명희 선생 가족과 가까이 지냈다. 그녀는 남편이 독일인 내과 의사였고, 나는 아내가 영국계 미국인 소아과 의사로 서로의 두 딸의 나이가 비슷하고 또 서로를 좋아하여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김명희 선생은 프로이트 전통 학파에서 성인과 아동 분석의 과정을 필한 분으로 긍지를 가진 분석가였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것은 우리 학계와 국가적 손실이었다. 김명희 선생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은 학구열이 강하고, 고고학과 문화성에 대한 신념이 있어 하버드 대학의 와그너 교수와 친밀하게 연구를 진행하며 러시아의 시베리아 까지 답사한 분이다. 왜 김명희 선생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분은 철저하게 치료하면 정신병은 완치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명사회의 양상을 규명하고 정신병의 출처를 규명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다시 치료 성과의 문제로 돌아가자.

정신 치료나 분석에서 완치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환자는 대체로 치료에 협조 않거나 치료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의욕이 강하고 치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자들은 성공률이 높고, 이런 환자들은 중단했다가도 다시 치료에 복귀하기를 반복하는 자들도 있어 치료 효과를 본다. 치료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은 치료를 경험한 후에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도 많다. 치료 성과를 올리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보통은

치료에 대한 열성, motivation(동기)과 자아 의식과 자아 반성을 잘 응용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정신분석을 받는 분들은 대개 자기 분석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있고, 장시일, 매주 3-5회 치료에 임하는 열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 물론 치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데 좌우되지만 대개는 좋은 성과를 올린다. 다만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 때문에 실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 치료환자는 많지 않고 분석 치료 과정을 밟는 수련생이거나 부유층 환자로 대화를 갈급하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뉴욕에서 일어난 옛 동료 이야기:

약물 치료와 함께 신경 자극 치료나 생리적 치료 외에 정신 상담 치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의 경험으로 보면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응급실 환자 등의 임상 경험과 정신분석을 비롯한 장기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 얻는 환자 관찰력과 가족 상황 파악과 자세한 가족들에 대한 내력을 알면 어떤 치료를 하며,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이런 종합적 수련을 시행하는 수련 병원이 많지 않다.

문제는 요즘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 치료를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것은 정신 치료를 심리학자나 사회 복지사에게 일임하는 경향 때문에 시대적 변천에 따라 정신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신 의학의 사회학적 전통을 발전시켜야 하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신 치료의 중추를 담당해 온 분들은 정신분석가들이었다. 이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통 프로이트 파로 개인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반면, 또 하나는 신-프로이트 파로 대인관계, 문화성과 가족관계를 중요시 하는 문화성 정신분석 과 혹은 신-프로이트 파로 불려졌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은퇴한 결과로 정신 치료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선생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정신과 수련 의사들은 정신 치료 경험을 쌓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정신 치료를 찾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상류층이고 부유한 분 들이므로, 빈번한 회수와 장시일을 요구하는 (주 3-5회, 3-10년 환료) 치료가 가능하지만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오랜 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소수의 환자를 다루는 것은 사치스럽고 낭비라는 비판과 수입도 적은 귀족적인 계급을 조성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분석은 정신 치료와 함께 퇴행해 버렸다. 그러나 정신분석이 아닌 정신 치료는 아직도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심리학자나 사회 복지, 심리사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신 치료의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훑어보며 한마디 했다.

"Because you are not speaking Korean." (이덕승)

전망중 부인: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수요 공급으로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 엘에이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의 일화입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어머! 전기다리미를 안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은 놀라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 보니 전기다리미는 꺼져 있었다. 다음날도 아내는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도 전기다리미를 깜빡 잊고 끄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불이 날까봐 겁이 나서 집으로 차를 돌려왔다. 하지만 그날도 전기다리미는 꺼져 있었다. 다음날 차가 출발한지 10분 쯤 지나서 아내가 또 소리를 질렀다. "전기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나요!" 그러자 남편은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트렁크를 열며 큰소리로 말했다.

"전기다리미 트렁크 안에 있어 나가서 확인해 봐!" (이덕승)

농담 골목

17세인 나의 손자가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를 수리해 주니 참으로 기뻐다. 그의 아버지는 나의 둘째 아들이며 내가 가르치던 의과대학의 학생이었다. (노용면)

내가 뉴욕 주립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강의를 끝마치니, 동양계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했다. 이들 중에는 우리 아들 하나도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강의를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노용면)

한국의 어느 편의점에서

오래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화입니다.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거나하게 술에 취한 한 외국인이 점원에 게 영어로 맥주가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로 물다가 말이 안통하니깐 옆에 서있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대뜸 "She doesn't understand what I'm saying." 하길래 나도

2020-21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안우성 49대 회기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949 고영철
- 1954 김갑균 이동식
- 1956 김신형 김윤태 박상기 서상철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윤범 김해암 김학륜 류치열 배영섭 신상균 유영호 이만택 이상설 이종용 이운순 이종국 의희섭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김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용덕 김한섭 남길진 반용균 방덕환 방석운 서경화 신한수 이교락 이원호 이종수 임낙중 정대진 최대환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고재경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민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준명 오신중 염극용 이광준 이경화 이덕송 이상일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한성수
- 1961 강창욱 곽동린 고의결 김영철 김예흠 김유홍 김화섭 박승근 박장생 박준환 박호성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상일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희백 이철희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진창건 차철준 최공창 최성덕 최지원 최용성 최태순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 1962 고희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종 남성희 박종건 박종승 박진수 박찬형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복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태봉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조 김갑중 김계윤 김승태 김정일 김재중 김주용 김택수 김태웅 김태형 김현화 김현철 김충열 노인규 마동일 박승근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진수 윤영섭 윤영욱 이능석 이병준 이수인 이순형 이재명 임춘수 장세곤 장인호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한광수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황 오유섭 유광현 유창남 윤희기 이정은 이종우 이재필 이종성 이홍표 임병훈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은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흥선경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김길중 김덕진 김욱현 박수안 백길영 신백호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의 이재진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재은 홍수웅 황규정
- 1966 김우신 김진수 김용재 김은한 김진수 김충규 남궁승 이명희 이성근 이영은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삼 조규용 조의열 최순재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영철 문경용 박정일 우준균 유 달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준식 이영규 이태안 지일성 최무웅 최승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진홍 김주평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안금환 안세현 이건일 유우영 이상훈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흥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변영석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윤효윤 육순재 이용환 이흥호 이지훈 임만우 임웅규 천양극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박홍식 방준재 오석일 송유준 오석일 이명상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재홍 김창구 김 훈 김효순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이남수 이상길 이종일 이원택 조세진 장 철 정인용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장혜숙 정근희 정진우 조경호 황용규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박진섭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이계석 임준현
- 1974 권철수 구재훈 김웅진 유영준 임자은 최태식
- 1975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전경배 조철영
- 1976 김정아 안우성 유영결 한승신
- 1977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80 박남훈
- 1982 차민영
- 1985 김자성 박정미
- 1991 홍정연
- 1995 권준혁
- 2000 박은경
- 2002 최태웅
- 2008 박종환 이익재
- 1950 한원봉 나수섭
- 1955 노용면 박병원 양거영
- 1957 김용진 서영환 임종식 임종원

—은 2회 이상 납부하신 동문

2021-22 안우성 2기 동창회비와 Donation List

동창회비: 서상철(56) 류치열(58) 김한섭(59) 서경화(59) 최혜숙(59) 이상일(60) 최홍락(60) 박장생(61) 이상무(62) 이재명(63) 박홍식(70) 방병기(73) 송경민(09) General Donation: 최혜숙(59) 125 Scholarship Donation: 김태웅 (63) 10,000

안우성 회기 (2기) 안내

기간: 2021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회비: \$125, Payable to SNUCMAA
2021년 7월 1일 이후 접수된 동창회비는 안우성 회기 2기의 동창회비로 입금됩니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의 회계(fiscal year)년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37th CONVENTION DONATION

임종식(57)1,000 김윤범(58) 100 최종진(59) 100 이종석(60) 250 강창욱(61) 400
황현상(61) 75 김한종(62) 500 정정수(62) 600 이재필(64) 30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700 장한교(66) 100 이건일(68) 200 윤효윤(69) 100 김창구(71) 100
배성호(71) 300 조세진(71) 75 나두섭(73) 200 김웅진(74) 100 김정아(76) 800
안우성(76)10,000 한승신(76) 800 이선규(89) 100 서울메디칼(차민영 82) 10,000

GREEN PROJECT FUND

권기홍(60) 500 이종석(60) 150 진창건(61) 75 황현상(61) 100 박종승(62) 100
정정수(62) 175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신백호(65) 75 차재철(68) 100
이성길(71) 200 오용호(72) 300 서인석(73) 100 김원정(75) 1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700 유영결(76) 150 한승신(76) 700 박남훈(80) 350 강민종(81) 500
남명호(81) 500 서귀숙(84) 100 이선규(89) 100 흥정연(91) 100 이도은(99) 100
한효숙(99) 100 박은경(00) 100 김태곤(01) 100 최태웅(02) 100 조수정(03) 100

CHARITY FUND

최창송(58) 500 권기홍(60) 500 황현상(61) 175 김현철(63) 75 라찬국(64) 100
신두식(64) 200 허선행(64) 100 흥선경(64) 100 채도경(99) 100 최영자(66) 400
강명식(67) 175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하준영(71) 75 문대욱(73) 500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김정아(76) 150 한승신(76) 150
신영희 (Mrs. 염극용 60) 3,000

SCHOLARSHIP FUND

김윤범(58) 100 김학륜(58) 100 최종진(59) 150 권기홍(60) 500 이종석(60) 50
임필순(60) 200 한수웅(61) 100 황현상(61) 300 김한종(62) 500 이기범(62) 375
김현학(63) 150 김재중(63) 200 한기현(63) 275 한광수(63) 300 이재필(64) 300
안연승(64) 300 허선행(64) 100 이홍표(64) 125 김길중(65) 500 이영규(67) 100
김주평(68) 75 차재철(68) 100 이건일(68) 200 장현식(70) 100 오석일(70) 25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200 서정자(71) 350 장 철(71) 75 조경호(72) 200
정근희(72) 875 박진섭(73) 200 김웅진(74) 100 유영준(74) 200 김자역(75) 5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한효숙(99) 75 이도은(99) 50
김태웅(63) 장학금 10,000 정병욱 Fund 10,000
김정화(Mrs. 이상설 58) 5,000 최문숙(Mrs. 정일환 63) 5,000

GENERAL DONATION

김갑균(54) 150 노용면(55) 700 김신형(56) 200 서상철(56) 625 임종원(57) 75
김석희(58) 200 신상균(58) 100 유영호(58) 200 의희섭(58) 125 강상진(59)4,520
서경화(59) 50 오형원(59)2,270 한성업(59) 100 최종진(59) 250 최혜숙(59) 125
권기홍(60) 500 박명근(60) 50 이경화(60) 75 이상일(60)1,000 이종석(60) 100
임종원(60) 50 한성수(60) 75 강창욱(61) 200 박준환(61) 50 손기용(61) 200
이철희(61) 75 장성환(61) 100 최용성(61) 125 최지원(61) 50 황현상(61) 275
박종승(62) 250 이태봉(62) 50 김계윤(63) 75 김태웅(63)1,000 권영조(63)1,200
노인규(63) 150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임춘수(63) 200 장인호(63) 75
조열하(63) 125 조한원(63) 75 권정덕(64) 100 김태환(64) 200 양운택(64) 100
이재필(64) 150 이홍표(64) 50 최준희(64) 175 허선행(64) 225 박수안(65) 100
정길화(65) 100 이한승(65) 100 최영인(65) 100 채무원(65) 250 김진수(66) 100
이명희(66)10,000정량수(66) 75 김성철(67) 75 이소희(67) 25 김영남(68) 100
이건일(68) 175 이상훈(68) 175 차재철(68) 175 흥광신(68) 100 안금환(68) 75
김희주(68) 100 김중권(69) 200 박수웅(69) 375 변영석(69) 100 송용재(69) 200
이용환(69) 100 김형달(70) 100 오석일(70) 150 김성환(71) 500 김창구(71) 100
서정자(71) 50 오동환(71) 200 오용호(72) 200 조경호(72) 25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박진섭(73) 100 권철수(74) 1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김동훈(77) 200 서귀숙(84) 100 김자성(85) 125 박정미(85) 100
권준혁(95) 175 이도은(99) 100
김수진 (Mrs. 김광서 47) 50 Mrs. 주창준(56) 200
고애자 (Mrs. 이운순 58) 5,000 김정화 (Mrs. 이상설 58) 5,500
신영주 (Mrs. 신영철 59) 300 Mrs. 계훈택(61) 500
John Lee(이범세 63 Son) 1,000

AASCDTF DONATION

노용면(55) 125 최창송(58) 500 박찬형(62)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남명호(81) 200

시계탑 원고에 대한 안내의 말씀

우리의 시계탑에 글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내용은 지부소식, 수필, 산문, 기행문, 독후감, 시, 사진작품,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사랑, 경험담,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 등 모두 환영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인 사항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고는 길이가 1면을 넘지 않는 분량입니다. 만일에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돌려 보내거나 편집회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우리 동창회 website로 보내질 것입니다. 특히 사진은 꼭 필요한 몇 장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7년 역사를 가진 시계탑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원 여러분들의 눈이요 귀요 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보물입니다. 이 귀중한 시계탑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안내말씀을 따라 주시면 편집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학년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 원고는 email로 혹은 육필의 경우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 Seok Seo, M.D.
15727 Rothschild Court, Haymarket, VA 20169
Tel: 419-234-4154
E-mail: younseokseo2004@gmail.com / snucmma@yahoo.com